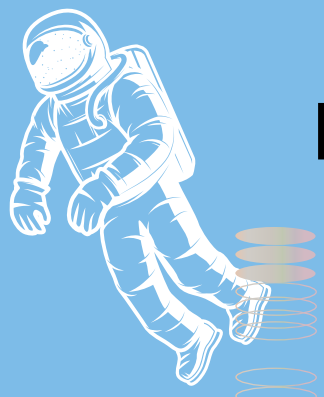
VOL 92

HELLO NEXEN MAGAZINE

2023 SUMMER



ODYSSEY

나를 찾아 떠나는 모험, 호기심 가득한 세상

WE GOT YOU, MY NEXEN UNIVERSE

헬로 넥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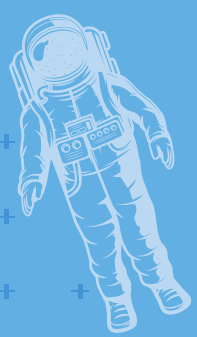
ODYSSEY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바로 꿈꿔오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누구도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은 오지를 탐험하는 것만이
모험담이 갖춰야 할 조건은 아니다.

부모 답게, 선배 답게, 나 답게 사는
삶을 바라며 답을 구하는 과정도,
퇴근 후 하루의 완벽한 마침표가 되어줄
진정한 소확행을 발견해내는 순간도,
매일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우리는 이미
모험의 대서사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게 아닐까?

단 1분도 어제와 같은 1분은 없는 것처럼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마주할 숙명에 놓인 우리들!
탐험을 일삼는 진정한 모험가들로 태어난 것이다.



www.nexentire.com

HELLO NEXEN MAGAZINE

2023
SUMMER

VOL 92

SPECIAL THEME : ODYSSEY

6 **오프닝** 못 찾겠다, 꾀꼬리! 무엇을 찾아 모험 중인가요?
8 **과학 에세이** 인류의 우주탐사가 보여준 도전적 발자취
12 **일상을 깨우는 여행** 모험으로 들춰보는 제주의 속살, 백패킹 vs 해녀체험
18 **넥센인의 pick** 호기심으로 떠나보는 넥센인의 모험기

STATION 1

22 **ISSUE 1** 감사한 마음은 꽃향기를 싣고 '사내 원데이 클래스'
24 **ISSUE 2**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1박 2일
28 **ISSUE 3** 넥센타이어, '2023 퍼플 서밋 맨체스터' 개최
30 **ISSUE 4** 다채로운 CA 캠페인 프로그램
34 **ISSUE 5**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 개최
38 **ISSUE 6** 넥센타이어, '인베스터 인사이트 데이' 개최
40 **ISSUE 7** 놀이동산으로 떠난 팀 소통 프로그램
44 **TIRE TECH** 타이어테크 서곡점

STATION 2

50 **오늘도 해피타임!** 헬로우 넥센이 양산공장에 쏜다! 오늘 하루 간식 특템하세요~
54 **우리 가족 DIY** 폐유리의 아름다운 변신, 식탁 위 냄비 받침으로 재탄생
58 **NEXEN CSR** 파주시 포도농가로 떠난 농촌 봉사활동

STATION 3

62 **컬처 가이드** 내 안에 꿈틀대는 '모험' 세포! 이야기로 떠나는 오디세이
66 **미래참견시점** 로봇, 모빌리티 쇼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70 **핫템 모아보기** 여행의 품격을 높여라! 인싸 캐리어 훔치기
74 **365 건강백서** 피서지에서 생긴 일! 응급 상황 A to Z
78 **NEWS**
82 **함께해요**

헬로우 넥센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23년 7월 3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문화혁신팀
이재엽 팀장, 김희진 책임
기획 및 출판 (주)대통기획
02-2269-3613
ISSN 2765-2904

친환경 환경부

헬로우 넥센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SPECIAL THEME

오프닝

과학 에세이

일상을 깨우는 여행

넥센인의 pick

VOL 92

2023
SUMMER

ODYSSEY

호기심을 품고 끊임없이 우주의 문을 두드렸던 탐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인류가 가진 모험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과학자들의 넘쳐나는 호기심으로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밝혀낸 모험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 역시 평범한 일상에서 매일같이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어제보다 맛있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레시피를 탐구하고, 배낭 하나에 의지해 백패킹을 떠나기도 하며 나는 누구인지 철학적 질문에 답을 찾아 가기도 한다.

못 찾겠다! 꾀꼬리

알 수 없는 인생의 길 위에 때로는 여행자로, 때로는 방랑자처럼 '미지의 삶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걸음을 옮깁니다.
오늘도 넥센인들은 무엇을 찾아 모험을 떠났나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나를 찾아가는' 분명 가치 있는 여정일 것입니다.

일상의 모험이 여행이 되는 순간

매주 주말 등산을 가거나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일상에서 떠나는 모험이 여행이 되는 순간 일주일에 쌓였던 스트레스는 풀리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들 본인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식을 가져보세요.

정창두

내가 잘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시도해보면서 내가 잘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면 언젠가 Special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기엽

아빠표 수제 버거 레시피를 찾아

하나뿐인 우리 아들은 햄버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면서 맛도 있는 아빠표 최고의 햄버거 레시피를 찾기 위해 모험 중입니다. 현재 3번째 레시피에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직 아들에게 맛을 인정받진 못했지만, 언젠가는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라고 말해주는 그날까지 제 모험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송민석

집 나간 입맛 찾아 삼만 리

뭘 먹어도 맛있게 먹었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뭘 먹어도 맛이 없네요. 살과 함께 얼마 없는 근육마저 빠지고 있습니다. 집 나간 입맛을 찾기 위해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먹어보고 있습니다! 곧 돌아오겠지요? :)

이우재

무엇을 찾아 모험 중인가요?

마음에게 묻기 "내가 원하는 건?"

해야 할 것들로 나를 다그치지만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하려고요. 소중한 건 되돌릴 수 없을 때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걸 물어봐야겠습니다. 넥센인 모두,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여름 되길 바랄 게요.

김상원

완벽한 트러블 슈터를 꿈꾸며!

공정 내 발생한 문제점을 뚝딱 해결할 수 있는 트러블 슈터가 되기 위한 모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거뜬하게 풀어내는 마법사 같은 능력을 찾아 가고 싶습니다.

유상효

이인삼각,
우리 가족의 골인 지점을 향해

결혼도 하고 천사 같은 아기도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험 중입니다. 인생에 대한 답은 본인이 정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최태근

MZ는
예쁜 것(곳)이라면
참지 않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알고 있어요. 카메라를 켜게 만드는 예쁜 디저트와 감성 가득한 카페 인테리어는 놓칠 수 없죠! 그 속에 앉아 있으면 눈과 입이 즐거워집니다. 달콤한 행복으로 인도해줄 디저트 맛집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모험 중입니다.

남현지

김일훈 경희대학교 우주과학 박사

1957년에 인류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이후로도 인류는 끊임없이 우주 탐사의 호기심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의 발사가 성공했고,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100만 명 거주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더 이상 우주는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아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우주탐사의 도전적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보자.

미지의 영역으로의 모험

인류의 우주탐사가 보여준 도전적 발자취





(위) 세계 최초 액체 연료 로켓 발사 실험에 성공한 '네루' 로켓과 로버트 고다드 @NASA
(아래) 페네뮌네 로켓 연구소의 V2 로켓

인류 최초의 우주탐사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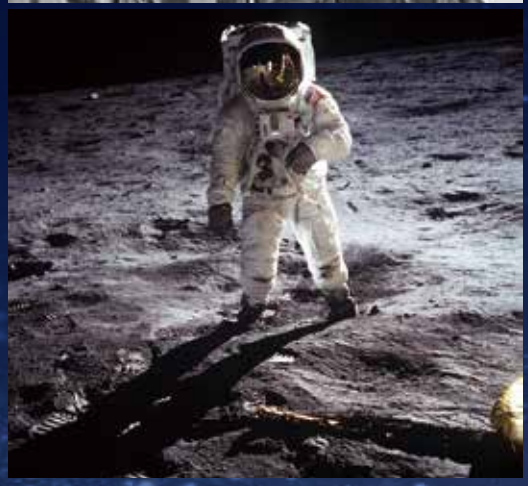
본격적인 우주탐사의 역사는 1903년 소련 과학자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의 〈반작용 모터를 이용한 우주 공간 탐험〉이라는 논문이 출간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의 로버트 고다드가 1926년 3월 16일에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 발사 실험에 성공했는데 성인 팔 하나 정도의 크기를 가진 '네루' 로켓은 약 2.5초 동안 비행하여 12.5m의 고도에 도달했다. 이는 액체 연료 추진의 가능성을 증명한 중요한 실험이었고, 1959년에 설립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고다드 우주 비행 센터의 이름 역시 그를 기념하여 명명되었다.

나치 독일의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은 고다드의 이론을 응용하여 1934년에 2,000m 고도에 도달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고 1942년에는 대형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1944년 완성한 V-2 로켓은 런던을 폭격하는데 사용했다. (흔히 최종 목적지가 우주인 경우는 로켓, 최종 목적지가 지구인 경우는 미사일로 구분한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에 먼저 진입한 소련군은 폰 브라운의 로켓 연구소인 '페네뮌데'를 점령하고 제조 중이던 V-2 로켓과 부품 등을 입수해 세계 최초 인공위성 궤도에 도달한 로켓 R-7 개발에 성공했다. 이로써 미국과의 우주탐사 경쟁에 앞서 나갈 수 있었다.

1957년 소련은 R-7 로켓을 이용하여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해 우주탐사 경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은 이듬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우주 관련 연구 조직을 통합하여 NASA를 설립하였고 폰 브라운을 중심으로 익스플로러 1호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탐사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후 1961년 4월 12일 소련이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 발사에 성공하게 된다. 보스토크 1호에는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된 유리 가가린이 탑승하였으며 1시간 46분 동안 우주여행을 한 후 지구로 귀환했다.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서 지구는 푸른색이다" 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최초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



닐 암스트롱이 촬영한
올드린의 모습
@NASA

누가 먼저 달 표면을 걸을 것인가?

우주탐사 경쟁은 이제 달로 집중됐다. 당시 소련에게 우주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인류 최초' 타이틀을 빼앗긴 미국은 아폴로 계획에 박차를 가하며 마침내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의 착륙선 이글호가 고요의 바다에 착륙하게 되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성조기를 세우고 달의 진동을 측정하는 월진계와 지구-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레이저 반사판을 설치했다. 아폴로 11호의 선장으로 인류 최초로 달에 첫발을 내딛게 된 닐 암스트롱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

이후 아폴로 12호부터 17호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2명의 우주비행사가 달에 착륙했으며 382kg의 달 표본을 지구로 운반했다. 아폴로 계획 이후 소련은 샬루트와 미르 우주정거장을 건설하여 거대하고 거주가 가능한 우주과학실험실을 마련했다. 미르(Мир)는 러시아어로 평화를 의미하며, 1986년에 발사해 2001년에 다시 지구 대기로 재진입 하면서 수명을 다했다. 미르는 운용기간동안 지구를 9만 바퀴 이상 순회하였고, 러시아 우주인 42명, 미국 우주인이 7명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의 우주인도 55명이 방문하여 2만여 회의 실험을 진행했다. 끈질긴 탐구 정신이다.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



미르에 도킹하기
위해 접근하는
우주왕복선에서 촬영한
사진 @NASA



화성 탐사 로버.
왼쪽부터
오퍼튜니티,
스피릿, 소저너,
큐리오시티
@NASA

화성과 금성, 그리고 소행성을 찾아 떠나다

미국은 달 탐사와 더불어 행성에 대한 탐사 계획을 진행했다. 1976년에 이르러 두 대의 바이킹 호가 처음으로 화성 표면에 착륙했고, 2004년 쌍둥이 로버(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와 스피릿이 화성에 물이 존재하는지를 탐사했다. 이후 2012년 화성에 착륙한 큐리오시티는 화성의 기후와 지질을 조사하고,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2018년에는 인사이트가 화성의 엘리시움 평원에 착륙해 화성 내부 구조 탐사 중, 최초로 화성의 지진을 포착하기도 했다.

미국이 화성과 달에 집중하는 동안 소련은 금성 탐사에 집중했다. 1961년 2월에 최초의 금성 탐사선인 베네라 1호 발사를 시작으로 5년 후 발사된 베네라 4호가 금성 대기의 90%가 이산화탄소이며 대기 온도는 최대 500도씨이고 대기압은 약 90기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에도 소련은 베네라 시리즈를 계속 금성에 보내어 대기의 성분을 분석하고 환경 정보를 종합하여 금성에는 생물이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983년 6월에는 베네라 시리즈의 마지막 탐사선인 15호와 16호를 발사해 금성을 선회하며 금성의 전체 지도를 제작하였다.

ODYSS



금성 탐사 베네라
16호의 모형
@Russianspaceweb



소행성 이토카와로 접근하고 있는
하야부사 탐사선의 상상도 (@JAXA)

EY

이후에도 NASA를 비롯하여 유럽우주기구(ESA), 일본항공우주기구(JAXA) 등은 소행성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가 소행성 탐사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태양계의 기원과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이다. 미지의 영역 그 자체인 소행성을 탐사하기 위한 인류의 피나는 노력의 단편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일본의 이토카와 탐사 이야기다.

2003년 5월에 일본에서는 지구 접근 천체인 소행성 이토카와를 탐사할 목적으로 제20호 과학위성을 발사하였다. 하야부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진 이 탐사선은 이토카와에 착륙하여 샘플을 채취한 후 지구 근처까지 와서 샘플을 지구로 투하 한 다음 다시 다른 소행성을 찾아 탐사를 떠날 계획이었으나 2003년 태양전지판에 큰 손상을 입고 발전량이 감소돼 여러차례 통신 두절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연료 분사등을 통해 자세를 잡아 가며 2년간 태양을 두 바퀴 돌아 2005년 6월 소행성 이토카와에 도착했다. 모두가 우주 미아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야부사는 임무를 마치고 2010년 6월 13일 지구로 귀환했다. 당초 예정보다 3년이나 늦었고, 항행 거리도 두배 이상 늘어났지만 하야부사는 소행성 이토카와의 토양 샘플을 담은 캡슐을 분리시켜 호주 우메라 사막으로 성공적으로 보냈다. 일본과 세계 여려 나라의 연구진들은 하야부사가 지구로 가지고 온 이토카와의 샘플을 분석하여 45억년 전 태양계 탄생 당시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야부사는 출력이 낮은 하지만 수명이 긴 이온 엔진으로 우주를 장시간 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사상 최초로 소행성의 시료를 지구로 운반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또한 7년 동안 60억km를 비행하였고, 우주 미아 상태에 빠졌던 탐사선을 기적적으로 귀환 시켜 우주탐사에는 실패에 굴하지 않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ODYSSEY 일상을 깨우는 여행

글, 사진. 정철훈(여행작가)

제주도가 우리나라 최고의 여행지라는 데에 토를 달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늘 여행자로 붐빈다. 제주도를 찾는 이들의 목적도 다양하다. 단체 패키지 여행에서 먹방투어까지. 그리고 또 하나, 모험. 최근 제주도에서 배낭 맨 백패커들이 자주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모험 때문이다.



모험으로 들춰보는 제주의 속살



백패킹 vs 해녀체험

HELLO NEXEN MAGAZINE VOL 92 2023 SUMMER



비양도 야영장 전경

등짐지고 떠나는 제주로의 모험 시작!

모험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정글도 들고 밀림을 헤집어야 하는 아마존도 아니지만, 이 곳에서의 모험이란 제주의 '날것'을 즐기는 여행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렌트카로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같은 유명 관광지만 바쁘게 찾아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온몸으로 꼼꼼히 그리고 느리게 제주도를 체감하는 여행. 제주도의 날것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이 백패킹이다.

백패킹(backpacking)은 이름처럼 '등짐' 지고 떠나는 여행이다. 필요한 장비를 차에 가득 싣고 떠나는 여행에 비하면 조금, 아니 많이 불편하지만 튼튼한 두 다리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매력적이다.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간혹 백패킹을 캠핑과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캠핑은 백패킹의 한 부분일 뿐, 전부는 아니다. 야영 장비를 짊어지고 1박 이상 여행을 떠나는 백패킹은 20세기 초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거나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없는 지역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된 레포츠다.

백패킹 베이스캠프, 비양도로 향한다

제주도에서 백패킹 명소로 꼽히는 곳이 비양도다. 비양도는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를 더 가야 닿는 우도의 부속 섬으로 족보로 따지면 제주도의 손자 뻘쯤 되는 작은 섬이다. 무인도였던 비양도는 2003년 다리가 놓이며 섬 아닌 섬이 됐다. 백패커들은 비양도를 굴업도, 선자령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백패킹 성지로 꼽는데, 정확히는 백패킹을 위한 야영지가 비양도에 있다. 그러니까, 비양도는 제주도로 떠나는 백패킹의 베이스캠프인 셈. 참고로, 제주도에는 우도의 비양도 말고 협재에도 비양도라 부르는 섬이 하나 더 있으니 헷갈리지 말 것.

제주 성산포항에서 출발하는 페리는 우도의 하우목동항과 천진항을 30분 간격으로 교차 운행한다. 오전 7시 성산포항을 출발한 첫 배는 오후 6시 30분까지 하루에 22번(5~8월) 하우목동항과 천진항을 오간다. 초행자라면 페리에 몸을 싣기 전, 짧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우목동항행? 천진항 행? 비양도가 목적지라면 천진항보다 하우목동항이 낫다. 하우목동항과 비양도는 우도의 서쪽과 동쪽 끝에서 마주보고 자리한다. 그러니 하우목동항에서 남쪽으로 3km쯤 떨어진 천진항을 출발점으로 삼으면 그만큼 거리가 늘어난다. 하우목동항에서 비양도까지는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6km 남짓, 마을을 가로지르면 3km 정도다.



마을버스 운행 시간 및 정거장 정보는 제주시 우도면 홈페이지에서 확인

페리 운행 정보

승선료 어른 기준 왕복 1만 500원(신분증 지참)

차량 선적료 중형차 기준 2만 6,000원

* 우도 숙박 예약자, 임산부, 65세 이상 경로, 7세 미만 영유아 차량 입도 가능

우도에 발을 들이자 모험이 시작

백패킹은 그런 거다. 자연이 내어주는 것을 겸허히 몸으로 받아내는 것. 그리고 감각하는 것. 고맙게도 하우목동항에서 비양도에 이르는 우도 북쪽 해안도로는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제주 올레길 1-1코스에 속한다. 욕심이 난다면 내친김에 우도를 한 바퀴 도는 올레길 완주에 도전해 보는 것도 멋진 일이다. 하우목동항에서 하고수동해수욕장, 우도봉, 천진항을 거쳐 다시 하우목동항으로 돌아오는 올레길 1-1코스는 전체 11.3km로 6시간 정도 걸린다. 만일을 대비해 마을버스 운행 정보도 꼼꼼히 챙기자. 15분 단위로 운행하는 해안관광버스에 비해 긴 배차시간(1시간)이 아쉽지만, 잘만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우도와 비양도를 즐길 수 있다. 우도 해안관광버스는 짐이 많은 백패커들의 승차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비양도 북쪽 해안에 접한 야영지는 인근 방목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바람을 막기 위해 어른 허리 높이로 쌓은 허술한 돌담 몇 개를 빼면 텅 빈 공터나 다름없다. 바다 쪽으로 활짝 열린 야영지는 어디서든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명당 아닌 곳이 없다. 이용료는 무료. 대부분 사유지이지만 우도를, 비양도를 찾아주는 백패커들이 고마워 마을주민들이 무상으로 땅을 제공한다. 야영지 옆에 세면대를 갖춘 화장실이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화장실 옆에 별도로 마련했다. 굳이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일반 관광객과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 정도. 비양도는 우도를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거쳐 가는 유명 스폿이다 보니 조금 어수선한 건 사실이다. 그래도 마지막 배가 우도를 떠나는 오후 6시 30분 이후에는 나름 운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제로웨이스트 백패커

백패커들에게 야영지는 종착지가 아닌 경유지다. 그러니, 다음 사람을 위해 머문 흔적은 최대한 남기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예전처럼 야영지에서 삼겹살을 굽는 몰상식한 사람은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화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백패커에게 식사는 비화식이 원칙이다. 비화식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끓는 물 없이도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어 백팩커는 물론 등산가들도 즐겨 애용한다. 최근에 나온 비화식은 짜장밥에서 제육볶음까지 메뉴도 다양해졌다. 비양도 입구에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있지만, 식수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하룻밤 머물 잠자리를 마련했으면,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면 된다. 야영지 옆에 우뚝 선 돌로 쌓은 구조물은 봉수대다. 포털 사이트 검색 창에 '비양도 백패킹'을 써넣으면 나오는 이미지 대부분이 이곳 위에서 촬영한 사진들이다. 검은 현무암이 해안을 이루고, 그 현무암 위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장면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초지 위에 각양각색의 텐트가 점점이 자리한 모습도 이국적이다. 아! 일출과 일몰도 놓치지 말 것.

비양도 비화식 식사



우도 하고수동해수욕장





해녀체험



제주의 바다 속을 누비다, 해녀체험

우도와 비양도를 넘나들며 즐긴 백패킹이 제주 땅이 선사한 모험이라면, 이제 바다로 갈 차례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 섬이지 않은가. 그러니 바다에서의 모험을 빼놓으면 섭섭하다. 백팩킹에 필적할 바다 모험의 주인공은? 스킨스쿠버도, 스노클링도 아닌 해녀체험이다. 제주도 하면 해녀, 해녀 하면 제주도 아니던가. 제주해녀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제주도에는 해녀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여럿 있다. 한수풀해녀학교는 그중 가장 활발하게 해녀체험을 운영하는 곳이다. 제주해녀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문을 연 국내 최초의 해녀 양성 교육 기관으로 한수풀해녀학교의 해녀체험은 하루 4번 진행되며,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체험도 가능하다. 2시간 정도 진행하는 해녀체험은 간단한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된다.



한수풀해녀학교
해녀체험 가능 시간: 10:00 11:30 13:30 15:30





해녀체험 장비는 스노쿨링 장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웨트슈트와 수경, 오리발. 한데 여기에 독특한 장비 하나가 추가된다. 바로 테왁망사리. 테왁망사리는 부표인 테왁과 망사리를 아울러 부르는 이름이다. 테왁망사리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잠깐씩 쉴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이기도 한데, 망사리의 둥근 테두리에 손을 얹고 의자에 앉듯 두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테왁의 부력으로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망사리는 채취한 해산물은 보관하는 그물망이다.

손으로 직접 따는, 바다가 준 고마운 선물

해녀체험의 백미는 단연 해산물 채취다. 한수풀해녀학교가 자리한 한림읍 일대에선 뿔소라와 해삼은 물론 전복이나 돌문어도 심심찮게 잡힌다. 물론 쉽지는 않다. 물에 떠있기도 벅찬데, 시퍼런 바닷물 속으로 잠수라니. 그것도 2m 이상을. 부력이 있는 웨트슈트를 입었으니, 초보자에겐 더욱 만만치 않다. 요령은 몸속의 공기를 최대한 빼내는 것. 한데 부작용이 있다. 빙고! 잠수 시간이 그만큼 짧아진다. 그럼 해녀들처럼 납 벨트를 착용하면 되지 않냐고? 그건 불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녀를 제외한 일반인은 납 벨트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할 수 없다.

해녀체험은 수영 실력과 무관하게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바다에서 하는 체험인데, 수영 실력이 필요 없다니. 한데 사실이다. 실제 해녀 중에는 수영을 아예 하지 못하는 분들도 제법 많다고 한다. 체험 시간 동안 전문 강사가 늘 함께하니 안전에 대한 걱정은 뚝. 채취한 해산물은 각자 손질해 입맛 따라 요리해 먹으면 된다. 삶은 뿔소라도, 날로 먹는 해삼도 그 맛이 일품이다. 물론 라면에 넣어 끓인 돌문어 맛을 따라 올 수 없지만.

한수풀해녀학교에서는 해녀 체험 중 촬영한 수중 사진을 웹하드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니 체험을 마친 뒤에는 사무실에서 들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해 꼭 다운로드 받도록 하자. 사진은 기억보다 오래 추억되는 법이다. 웹하드에 업로드 된 사진들은 5일 후 삭제된다는 점도 명심.

넥센인의 pick

정리. 편집실

설문기간: 2023. 6.8 ~ 6.9 /
참여자 122명

어린시절 우리는 모두가 모험가였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어디든 떠날 수 있었죠.
지금 넥센인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모험을
즐기는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호기심으로 떠나보는 넥센인의 모험기

빠져들고 싶은
나의 모험 장르는?

정통적인 어드벤처
26.21%

상상
그 이상의 SF
26.21%

웃음 가득한 모험, 코미디 18.62%
폭풍 같은 사랑, 로맨스 14.48%
반전에 반전을 서스펜스 추리물 11.72%

기타 2.76%
↳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엄청난 부를 위해 떠나는 모험 – 김주영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 – 이태민
진짜 스릴감 넘치는 어드벤쳐 모험 – 탁세원
원피스 만화처럼 바다로 떠나는 해적 모험 – 서용준
뭐니뭐니해도 르와르를 빼놓을 수 없죠 - 방제현



앤트맨처럼 작아졌다면
어디를
탐험하고 싶을까?

비행기에 무임 승차,
어디로든 날아가기
43.51%

우리 가족 건강한지 몸속 탐험 29.77%
화려한 인생을 경험해보겠어! 셀럽들의 가방 속 19.08%
내 책상 청결 상태 체크, 키보드부터 마우스까지! 2.29%

기타 5.34%
↳ 내가 원하는 로또 볼에 착 붙어서 1등 당첨 꿈꿔본다 - 김진식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들 맘대로 무전취식 – 노용준

워워!!
모험심 자중해야 할 때는?

괜찮은 상품이라고?!
투자의 바다로~
44.93%

업무 몰라도, 묻지 말고 나혼자 해보자! 27.54%
패션은 도전! 소화하기 나름 아니겠어? 13.77%
신메뉴가 나왔다면 응당 먹어줘야지! 11.59%

기타 2.17%
↳ 시작도 말자! 음주운전 – 오한준
OTT 와 모바일게임, 미디어에 중독되고 있다! - 김병갑

당신의 풋풋했던
추억 속 모험기는?

친구들과
우리만의 아지트
만들기
34.04%

가족들과 함께 떠난 캠핑 20.57%
두근두근 보물찾기 놀이~ 14.89%
자연을 누비며 곤충 채집 14.18%
등골이 오싹! 담력 테스트 11.35%

기타 4.96%
↳ 후덜덜 야간 산행 – 박우상
낭만 가득 나홀로 악기 연습 – 김상원
메이플 스토리 던전이 가장 스릴 있고
무서웠던 모험으로 기억이 나네요ㅎㅎ - 이혜윤



STATION

VOL 92

2023
SUMMER

넥센유니버스는 소통의 가치를 나누고 내일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곳이다. 가족들과 마곡에서 함께한 캠핑부터 팀원 간 소통을 독려하기 위한 소풍 프로그램, 소통을 통해 조직 혁신을 이루고자 운영된 다채로운 CA 캠페인 등의 소식을 준비했다.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 비즈니스 파트너를 초청한 퍼플 서밋 맨체스터와 스피드웨이 모터페스티벌 개최 현장도 함께 만나보자.

HELLO NEXEN MAGAZINE

ISSUE

TIRE TECH

STATION 1

글. 편집실, 사진. 김정호

감사한 마음은 꽃향기를 싣고

사내 원데이 클래스 '꽃바구니 만들기 편'

지난 5월 3일, 마곡에서 열린
두 번째 사내 원데이 클래스는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로 진행됐다.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들 간의 소통을 독려하고자
시작한 '쎈트리 클래스'는 2회차 만에
입소문이 나, 참여율이 꽤 치열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졌다. 꽃바구니 안에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기 위해 한송이마다
정성스레 꽃을 꽂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행복이 향기롭게 피어올랐다.

저녁 6시, 교육 세미나실이었던 공간이 꽃향기 가득한 원데이 클래스 장으로 변신을 마치자 꽃바구니 만들기 수업을 신청한 25명의 참여자들이 자리했다. 수업은 책상 위에 준비된 꽃들의 이름과 특성을 알아보는 통성명으로 시작했다. 익숙한 유채꽃부터 리시안셔스와 같은 낯선 꽃까지 하나하나 강사의 설명을 듣고 나자 꽃마다의 생김새를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게 되는 참여자들.

편백나무로 바구니에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순서대로 꽃을 꽂아가는 과정이 예상보다 섬세한 탓에 여기저기 SOS 요청이 쇄도했다. 만만치 않은 스킬을 요하는 꽃바구니 만들기 수업에 당황한 것도 잠시, 참여자들은 감사한 마음을 전할 대상을 떠올리며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다. 부모님, 자녀,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든 꽃바구니는 저마다의 사연과 아름다움으로 완성됐다. 이번 클래스는 만든 이에게는 힐링의 시간인 동시에 꽃바구니를 받는 누군가도 행복해지는 1+1 이벤트라 더욱 특별했다. 참여자들이 전하는 진심 가득한 사랑의 메시지를 만나보도록 하자.











mini interview

Mold설계팀 유소현 사원

"애교도 많고 친구 같은 엄마, 아빠! 평소에 무뚝뚝한 딸이지만 제 마음 아시죠? 올해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패턴디자인연구팀 김경훈 선임연구원

"우리 예쁜 딸 율하야! 아빠가 율하 생각하면서 만든 꽃이야. 지금처럼 항상 행복한 모습으로 자랐으면 해. 기둥같이 든든한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전진원 수석

"너무나 고마운 와이프! 한송이 한송이 직접 꽂으며 생각해보니까 꽃 선물을 많이 못해준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자주 꽃을 안겨줄 수 있는 남편이 되도록 할게."

컴파운드개발팀 김준형 선임연구원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만들었던 카네이션 말고는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드린 적이 없었네요. 직접 만든 꽃바구니 보시고 좋아하셨으면 해요. 조만간 꽃 같은 색시도 데려가도록 할게요."

해외OE개발1팀 전석호 연구원

"엄마, 아빠! 제가 직접 만든 꽃바구니예요. 회사에서 효도할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솜씨는 많이 서툴지만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해외OE개발1팀 권정욱 선임연구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제 생애 첫 꽃바구니예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만들어 봤어요. 아들이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글. 편집실, 사진. 김정호





자연에서 즐기는 캠핑의 즐거움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 도심 속에 자리한 엄마 아빠의 회사에서 하는
캠핑이라면?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2023년 가족과 함께 1박 2일 캠핑'
행사가 열렸다. 부모님이 근무하는 회사를 둘러보며
감탄도 해보고, 신나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가족과 가족이
서로 하나됐던 시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날의 풍경을 담았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1박 2일

푸른 하늘, 따스한 햇살! 완벽한 캠핑

더넥센유니버시티 중정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잔디마당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버블 장난감으로 신나게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아이들 얼굴은 한없이 해맑았다. 아빠, 엄마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통해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다. 물감을 칠해 놓은 듯한 파란 하늘, 점점이 떠 있는 하얀 구름, 따스한 오후 햇살이 내려앉은 초록 잔디… 캠핑하기에 더 없이 완벽한 풍경이었다.

모양은 똑같지만 스무 개의 텐트는 각각 가족의 개성이 드러나 있었다. 아이들이 평소 좋아하는 인형과 장난감, 색색의 풍선, 맛있는 간식, 아기자기한 캠핑 소품으로 가족만의 색깔을 표현한 것! 그 속에 고대했던 1박 2일 캠핑에 대한 가족의 들뜬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번 캠핑에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선정된 총 20팀의 가족이 함께했다. 이번 참가자들은 "이전에 참여했던 동료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기에 더욱 기대가 컸다"며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신청자들이 많아 경쟁이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캠핑의 하이라이트 레크리에이션 START~

오후 4시, '가족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순서가 다가오자 가족들은 반색하는 표정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길 기다렸다. 회사 전체를 둘러보는 CITY TOUR와 OFFICE TOUR 프로그램을 한껏 즐긴 후라 기대감이 더욱 컸다.

70명 넘는 어른 아이들이 무대 앞으로 모였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먼저 조를 구성했다. 1~5텐트가 A팀, 6~10텐트가 B팀, 11~15텐트가 C팀, 16~20텐트가 D팀이 됐다. 다음은 레크리에이션에서 빠질 수 없는 응원 연습하기. 더 크게 함성을 외치고 더 크게 박수를 친 몇몇 가족에게 주최 측이 준비한 선물이 주어졌다. 부러움이 담긴 "와~"하는 소리와 함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하나, 둘, 셋, 넷 구호에 맞춰 옆 사람의 등을 두드리며 가볍게 몸을 푸는 스트레칭 시간도 가졌다. 가족들은 조별로 주어진 조끼를 갈아입고 주장을 뽑고 '파이팅'까지 힘차게 외쳤다. 훌라후프 온몸으로 통과하기, 상대편 팀으로 공 더 많이 보내기, 색깔판 뒤집기, 릴레이 마라톤 등 다채로운 순서가 이어졌다. 게임이 이어질수록 열기는 뜨거웠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협동심과 승부욕을 배울 수 있었고 동심으로 돌아간 어른들은 마음껏 뛰고 웃으며 힐링할 수 있었다.

이날 캠핑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 체험형 프로그램인 하이라이트쇼(풍선 아트, 마술쇼, 버블쇼)로 이어지며 즐거움이 정점에 이르렀다.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고 가족은 하루 동안에 있었던 각자의 에피소드를 정답게 이야기하며 도심 속의 특별한 하룻밤을 맞이했다.



interview



Magazine PJT 박대경 책임 가족

"아이들도 엄지척! 아내도 엄지척! 행복합니다!"

3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올 2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이번 캠핑은 완전체 가족이 돼서 하는 첫 행사입니다. CITY TOUR 프로그램과 OFFICE TOUR 프로그램을 하면서 두 아들이 무척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빠가 근무하는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라고 느꼈는지 저에게 '엄지척'을 해주더군요. 저도 내심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요. 회사에서 하는 캠핑이라 그 어떤 캠핑보다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상품기획팀 정민철 책임 가족

"우리 가족 첫 캠핑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대상 캠핑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아이들이 어려서 참가를 못했어요. 직접 해보니 동료들이 왜 그렇게 참가하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여섯 살, 네 살이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또 한 번 참여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평소 가족과 여행은 자주 다니는 편인데, 캠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텐트와 테이블 등 필요한 것들이 다 마련돼 있어서 정말 홀가분하게 왔습니다.



NEXT LEVEL팀 손경호 책임 가족

"행복해하는 아내와 딸을 보니 뿌듯합니다"

지난번 캠핑에 참여했던 동료들로부터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내와 딸이 좋아하니 뿌듯합니다.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어린 시절 한때로 돌아간 듯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답답한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모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정겹게 대하고, 신나는 게임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전략팀 박대희 책임 가족

"회사라는 공간이 특별해지는 순간입니다"

아내,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캠핑에 참가했어요. 저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캠핑을 즐기는 '캠핑 가족'인데요. 이렇게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하는 캠핑은 색다른 기분이 드네요. 늘 업무를 보는 곳인데, 이렇게 특별한 공간이 될 수도 있구나 싶어 살짝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는 회사와 사무실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글. 김희진 책임 문화혁신팀



넥센타이어,
'2023 퍼플 서밋 맨체스터' 개최







2023 PURPLE SUMMIT
Manchester

넥센타이어가 전 세계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초청해 상호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 '2023 퍼플 서밋 맨체스터'(2023 PURPLE SUMMIT Manchester)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퍼플 서밋'은 넥센타이어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통합 마케팅 활동으로 올해는 전 세계 60여 명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참가해 4월 26일부터 28일(현지시간)까지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렸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퍼플 서밋'에서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하며 향후 파트너십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고 제품 소개 및 상호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공식 파트너사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 시티 FC(이하 맨시티)와 파트너십을 강조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맨시티 홈구장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맨시티와 아스날의 빅매치 경기 관람과 함께, 맨시티 레전드 선수이자 전 잉글랜드 국가대표 축구팀 선수였던 숀 라이트 필립스와 풋볼 코칭 세션도 마련됐다.

넥센타이어 강호찬 부회장은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초청해 보다 발전적 협력을 약속하는 '2023 퍼플 서밋'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혁신적인 고객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회사와 파트너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 정재환 수석 문화혁신팀

다채로운
CA 캠페인 프로그램

소통을 통해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다!

다양한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며,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가는 CA는 Change Agent의 약자로 조직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넥센타이어의 정예 요원으로서 지난 2017년에 조직되었다. 넥센타이어는 CA들과 각종 복지, 정책, 소통 등 다방면에서 조직문화에 대해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구성원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자 프로그램 방식에 변화를 주고, 한층 더 가까이 스킨십하는 형태의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사내 커뮤니케이션 게시판 '네모'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근황 올림픽



글로벌영업 BG에서는 매월 릴레이 형식으로 주재원들의 생활상을 메일로 공유하고, 격려하며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두바이지점 유성완 지점장

안녕하세요. 2018년부터 두바이 지점 부임하여 중동, 아프리카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유성완 지점장입니다. 2002년 입사하여 어느덧 넥센에서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이 중 절반은 콜롬비아, 두바이 등 해외에서 지내다 보니 그리운 분들도 많고 가끔 한국 방문할 때면, 반가움은 아마 대부분 주재원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저희 두바이 지점은, 3명의 주재원과 7명의 현채인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국제도시 답게 직원들의 국적도 인도, 필리핀, 요르단 등 다양하답니다.





보고타지점 이재철 지점장

2013년에 넥센타이어 해외영업조직에 입사해, 올해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재철 지점장입니다. 본사 근무 기간 동안에는 주로 동·서남아시아 지역 해외영업을 담당하다 2020년 10월 팬데믹이 한창일 때, 이곳 콜롬비아 보고타 지점으로 부임해 현재까지 1인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타 지점은 해발 2,650m의 고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4명의 현지 직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타 지점의 관할국은, 파나마 국을 포함한 이남 지역, 브라질 국을 제외한 이북 지역의 모든 국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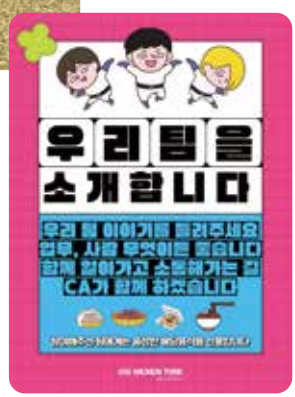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중앙연구소에서는 매월 하나의 팀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업무는 물론 구성원들의 개성 있는
소개로 이루어져 있어
구성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저기요



글로벌생산 BG에서는
매월 두 팀이 배달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다.
평소 감사 인사나
친해지고 싶은 팀을
짝지어 운영하고 있다.

한국영업BS HERO



한국영업BS 소속 직원 한 명을 매월 선정하여
소속 구성원들에게 개인 업무 소개와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이다.



글. 김남희 책임연구원 레이싱타이어개발팀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 개최

2023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 1라운드가 5월 7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개최됐다.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공인으로 진행되는 2023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은 연간 총 5라운드로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 모터스포츠의 지속적인 저변 확대와 모터스포츠 산업 기초종목 육성을 위해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인 에버랜드와 공동으로 새롭게 개최했다.











이벤트와 교육, 볼거리가 가득했던 현장

지난 5월 7일 2023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페스티벌 1라운드에 250여 대 차량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의 드라이빙 스킬 향상을 위해 서한GP 프로 레이싱 드라이버인 장현진, 김중군 선수가 참가자를 대상으로 드라이빙 스킬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함께 하고, 모터스포츠에서 타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타이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도 진행했다.

또한 경기장 패독에서는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대회에 출전하는 슈퍼 6000 차량 전시와 새로운 자동차 동호회 문화가 된 카밋을 주최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두 가지 색깔로 즐기는 드라이빙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은 아마추어 레이싱 선수들뿐만 아니라, 서킷 드라이빙을 즐기는 일반인, 드라이빙 아카데미가 필요한 서킷 드라이빙 입문자, 자동차 동호회 등 모터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대회는 '타겟 트라이얼 레이스'와 '짐카나' 클래스 총 2가지로 나눠져 진행됐다. '타겟 트라이얼 레이스'는 참가자 스스로가 목표한 랩타임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놓고 겨루는 방식으로 목표한 랩타임에 가장 근접해야 우승할 수 있다. 지정기록보다 더 빠른 기록은 무효 처리되며 목표한 랩타임에 +1/1000초까지 근접한 사람 순으로 기록을 경쟁했다.

'짐카나'는 자동차 경주의 입문 경기로 코스에 러버콘, 타이어, 드럼통 등의 장애물 구간을 설정해 놓고 드라이빙의 가속, 감속, 코너링을 겨루는 방식으로 완주시간에 따라 순위를 결정했다. 보통 저속 기어만을 사용하여 속도보다는 차량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추어 드라이버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모터스포츠에 입문하여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종목이다. 보통 '슬라럼'이라고도 부른다.

NEXEN TIRE





SPEEDWAY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과 헌신

넥센타이어는 2006년 RV챔피언십 대회를 시작으로 17년간 국내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와 더불어 아마추어 선수들의 체계적인 레이싱 대회 출전을 위해 국내 모터스포츠의 기반을 조성해왔다. 프로, 세미프로, 아마추어 클래스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모터스포츠에 입문은 물론 나아가 프로 모터스포츠 대회에 레이싱 드라이버로써 지속적으로 출전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넥센타이어는 모터스포츠 후원과 더불어 타이어 연구개발 및 성능 육성을 지속하며 모터스포츠 제품들을 출시해왔다.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한 고성능 타이어인 N9000, 모터스포츠 전용 세미 슬릭타이어 N'FERA SUR4G 등을 국내외의 다양한 선수들과 서킷에서 선보였고, 다가가기 어렵게만 느껴졌던 레이싱 전용 타이어를 보다 대중적인 타이어로써 공급하고 있다.

글. 김희진 책임 문화혁신팀, 사진. 김정호



넥센타이어 '인베스터 인사이트 데이' 개최

회사의 중장기 로드맵 발표 및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



넥센타이어가 '인베스터 인사이트 데이'를 개최하며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공개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5월 18일 서울 마곡에 위치한 중앙연구소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기관투자자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 5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열고 회사의 1분기 실적 Review 및 중장기 전략, ESG 정책 등에 대해 공유했다. 넥센타이어의 1분기 매출액은 6,3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고, 영업이익은 16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강호찬 넥센타이어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성장을 위한 당사의 노력을 적극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 · 반영하고자 인베스터 인사이트 데이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2027년까지 3조 6천억 원의 연 매출 목표액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글로벌 생산 확대 ▲글로벌 유통 Downstream 확대 ▲EV 시장 공급 확대 ▲Brand Value Up 등을 발표했다.



글. 김희진 책임 문화혁신팀

“우리 같이 소풍 갈래요?”

놀이동산으로 떠난 팀 소통 프로그램

문화혁신팀에서는 조직간 특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놀이동산으로의 ‘소풍’ 기회를 준비했다. ‘네모’를 통한 댓글 신청에서 가장 많은 ‘댓글 추천’을 받은 사업장별 2팀을 선정해, 마곡에서는 롯데월드 잠실, 양산공장에서는 롯데월드 기장, 창녕공장에서는 이월드 대구로 소풍을 다녀왔다.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다해 소풍을 즐기고 온 임직원들의 모습을 감상해 보자.



마곡
MOLD설계팀
& OE개발팀



"평일 오후에
놀이동산이라니~
웃음이 절로
나는구만"



양산공장
YP생산기술팀
& YP생산2팀











"곰과의 귀여움 대결!
우리가 WINNER"

"이 속도는 무엇!
나 집으로
돌아 갈래~"



창녕공장
CP생산기술팀
& CP환경안전팀



TIRE TECH 타이어테크 서곡점

STATION 1

고객을 위한 항시 대기조 24시간 꺼지지 않는 서비스

지난 3월에 오픈한 서곡점은 벌써부터 고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자자하다. 새벽에도 타이어 및 경정비가 가능한, 24시간 대리점이기 때문이다. 항시 대기조로 365일을 보내야 하는 일상이 힘들 법도 한데, 20년차 베테랑 홍석수 점장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어두운 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타이어테크 서곡점의 꺼지지 않는 빛은 오늘도 도움이 절실한 고객의 곁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첫인상! 질문하는 대리점

타이어테크 서곡점은 홍석수 점장 혼자 하는 1인 대리점이다. 고객관리부터 홍보, 서비스 및 점검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데가 없다.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해 있고, 눈에 띄는 인테리어 덕분에 우연히 방문하는 고객의 수가 적지 않은 만큼 한번 방문한 고객을 지속적인 단골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다.

"처음 온 고객도 나갈 때 웃을 수 있는 서곡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응대를 할 때 농담 한마디와 친절한 웃음은 기본이고, 차량과 타이어 상태에 대한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죠. 잘못된 운전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장거리 운행 등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단시간에 고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세심히 관찰하고, 디테일한 질문을 많이 던지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가 고객에게 꼼꼼하고 성실한 대리점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한 서비스 마인드만큼 홍석수 점장의 또 하나 강점은 베테랑 다운 제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다. 19년 동안 수입 브랜드 타이어를 판매해 왔던 그의 이력을 토대로 고객에게 국내외 타이어를 비교하여 넥센타이어의 우수성을 한층 더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

"수입 차량의 경우 대다수 고객이 수입 타이어를 고집하는 편인데요. 제가 해외 제품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좀 더 명확히 넥센타이어의 품질과 가성비 등을 비교해서 타이어를 권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안정적인 승차감과 조용한 공명음 등 넥센타이어의 뛰어난 품질과 가성비에 굉장히 만족해하는 '긍정적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이 차량과 타이어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놓치고 있는 것들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원인을 분석하고 비교해 핵심만 정확히 전달하는 홍석수 점장의 화법은 흡사 일타강사와 닮았다. 서곡점을 방문한 고객들은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차에 대해 한수 배워간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고객 유치로 이어진 온라인 홍보의 핵심은 '꾸준함'

홍석수 점장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24시간 #야간작업 #긴급 등의 키워드로 검색될 수 있도록 네이버 플레이스와 블로그에 게시물을 올리고 있으며, 지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비즈니스 코너에도 홍보글을 업로드 중이다. 이렇게 온라인 홍보를 통해 유치한 고객이 50%가량 된다고 하니 잠을 쪼개며 시간을 들였던 그의 발품이 헛되지 않았다.

"24시간 문이 열려 있다는 걸 홍보하면서부터 야간에 오시는 고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 새벽, 빗길 운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서곡점을 찾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난감한 상황을 해결해드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 새벽이나 야간에 오신 고객들은 특히나 더 고마워하세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다음에 또 방문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고객과의 신뢰를 쌓다 보면 저의 꿈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제 꿈이요? 1명도 빠짐없이 전주 시민 모두가 서곡점을 찾는 거랍니다."

인생의 절반을 타이어와 함께 한 홍석수 점장. 평생을 같이 걸어갈 업이란 생각으로 오늘도 고객바라기 항시 대기조를 자처하고 나섰다. 고객이 뒤돌아섰을 때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뚝심과 성실함이 그의 무기인 셈이다. 어느덧 오픈 100일이 지난 서곡점은 고객에게 땀과 신뢰를 인정받으며 기분 좋은 첫발을 떼었다. 지금의 초심을 잊지 않고 서곡점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펼쳐 가길 응원해 본다.





▲
타이어테크 서곡점
지도 보러가기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10
전화 0507-1432-7278

서곡점의 베테랑 노트

1 첫 방문 고객의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라!

처음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일수록 차량과 타이어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급적이면 질문을 많이 던져 평소 운행 습관 등의 정보를 파악한다. 손상된 부분의 원인을 설명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개선되면 운행 중 어떤 부분에 변화가 느껴질지 상세히 설명한다. 최대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2 타 브랜드 제품에 대한 공부도 필수

대부분의 소비자는 비교군이 있을 때 그 정보에 대해 더욱 신뢰하기 마련이다. 넥센타이어 제품의 강점을 공부하는 것은 기본, 국내외 타 브랜드 제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으면 제품을 권할 때 뒷받침해주는 탄탄한 근거가 된다. 최근 중국 브랜드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

3 온라인 홍보, 하는 만큼 고객 유치 가능

SNS나 중고마켓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 꾸준히, 그리고 자주 게시물을 올림으로써 고객과의 접점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24시간'과 같이 중요한 키워드를 해시태그로 달아, 검색 시 쉽게 노출되도록 하며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물리적 위치로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TIRE TECH VETERAN NOTE

STATION

VOL 92

2023
SUMMER

양산공장 임직원 대상으로 간식 뽑기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환경 보호를 위해 넥센인들이 직접 폐유리 재활용 DIY도 도전했다. 또한 코로나로 몇 년간 멈춰 있었던 농촌 봉사가 재개돼 임직원 20명이 일손부족을 돕기 위해 파주의 포도 농가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오늘도 해피타임!
우리 가족 DIY
NEXEN CSR

STATION 2



STATION 2

헬로우 넥센이 양산공장에 쏜다!



오늘 하루 간식 특템하세요~

무더위를 알리는 6월의 시작, 당충전 금요일을 선물하기 위해 〈헬로우 넥센〉이 양산공장을 찾았다. 추억의 종이 뽑기에 담긴 400여 개의 달콤한 간식이 넥센인의 반복된 일상에 작은 에너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식당 앞 길목에 제대로 판을 벌린 덕분에 호기심 어린 발길들이 줄을 이었다. 이색적인 이벤트에 웃음이 가득했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굿 에프터눈~ 이런 이벤트는 처음이죠?

꿀맛 같은 점심시간! 삼삼오오 식당으로 모이던 양산공장 구성원들 앞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주사위를 굴리고 나온 횟수만큼 종이 뽑기를 하면 선물을 준다는 말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사보 〈헬로우 넥센〉에서 준비한 생각지도 못한 서프라이즈에 어리둥절한 모습도 잠시! 종합과자 선물세트, 머랭쿠키, 더치 커피, 추억의 쫀드기까지 테이블 가득 자리한 간식들을 보는 순간 양산공장 구성원들의 눈이 번뜩였다. 아직 휴가를 떠나기 전이라 그런지 1등 상품 비치타올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주사위를 던지는 기합 소리부터 동료의 럭키한 하루를 응원하는 동료들, 그리고 손톱만한 작은 종이 뽑기를 쪼는 맛까지 다양한 모습이 연출됐다. 정오의 이벤트로 하루의 힘을 얻은 넥센인들에게 참여 소감과 '인생의 에너지원'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Mini interview

내 인생의 에너지원은?

예준이랑 유준이

(YP)전기파트 이동영 님

뜻밖의 이벤트였는데, 2등에 당첨돼서 기분 좋게 오후를 시작합니다. 깜찍한 과자세트가 저와 어울리나요? 제 인생의 에너지원인 우리 예준이랑 유준이한테 선물해주면 딱! 일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줘~"





지훈이

IOP팀 정주열 책임, 김학민 수석, 손민진 팀장, 김훈찬 수석

김학민: 저희 팀 보기만 해도 참 가족 같은 분위기죠? 40대의 저력이 빛나는 팀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작은 이벤트가 재미를 줬어요. 나의 에너지원 지훈아! 아빠 머랭쿠키 가지고 갈게.



가정의 행복

(YP)압출파트 김기완 파트장, 홍철용 조장

김: 비록 4등 쪼드기지만, 잠깐의 이벤트가 활력이 되네요. 저에게 가장 큰 에너지는 가정의 행복이에요. 오늘 같은 작은 추억으로 우리 가족도 웃음이 잦았으면 합니다.

홍: 분홍색 과자세트가 저랑 어울리나요?^^; 저 역시 가족의 행복과 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즐거움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지면 만사 오케이 아닌가요?

축구

(YP)설비보전2파트 이승철 사원

주사위 횟수가 2회 나오더니, 1등과 꽝이 동시에 뽑혔네요. 비치타올 쓰려면 빨리 여름 휴가 계획을 짜야겠어요. 1등이 된 것만큼 행복한 에너지원은 '축구'에요. 땀 흘리고 맑은 이슬 한잔이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죠.



BTS 지민 님 금융치료

(YP)생산관리파트 서명곡 님, 설비지원팀 김오영 님

서: 꽝이면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기분 전환이었어요. 제 인생에는 BTS 지민 님이 오늘의 이벤트같은 에너지랍니다. 아미여~ 영원하라!

김: 파이팅 메시지가 적혀 있는 더치 커피 잘 마실게요. 직장인에게 에너지원이라면 당연히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가는 금융치료 아니겠습니까?





여자친구

(YP)생산지원파트 오경현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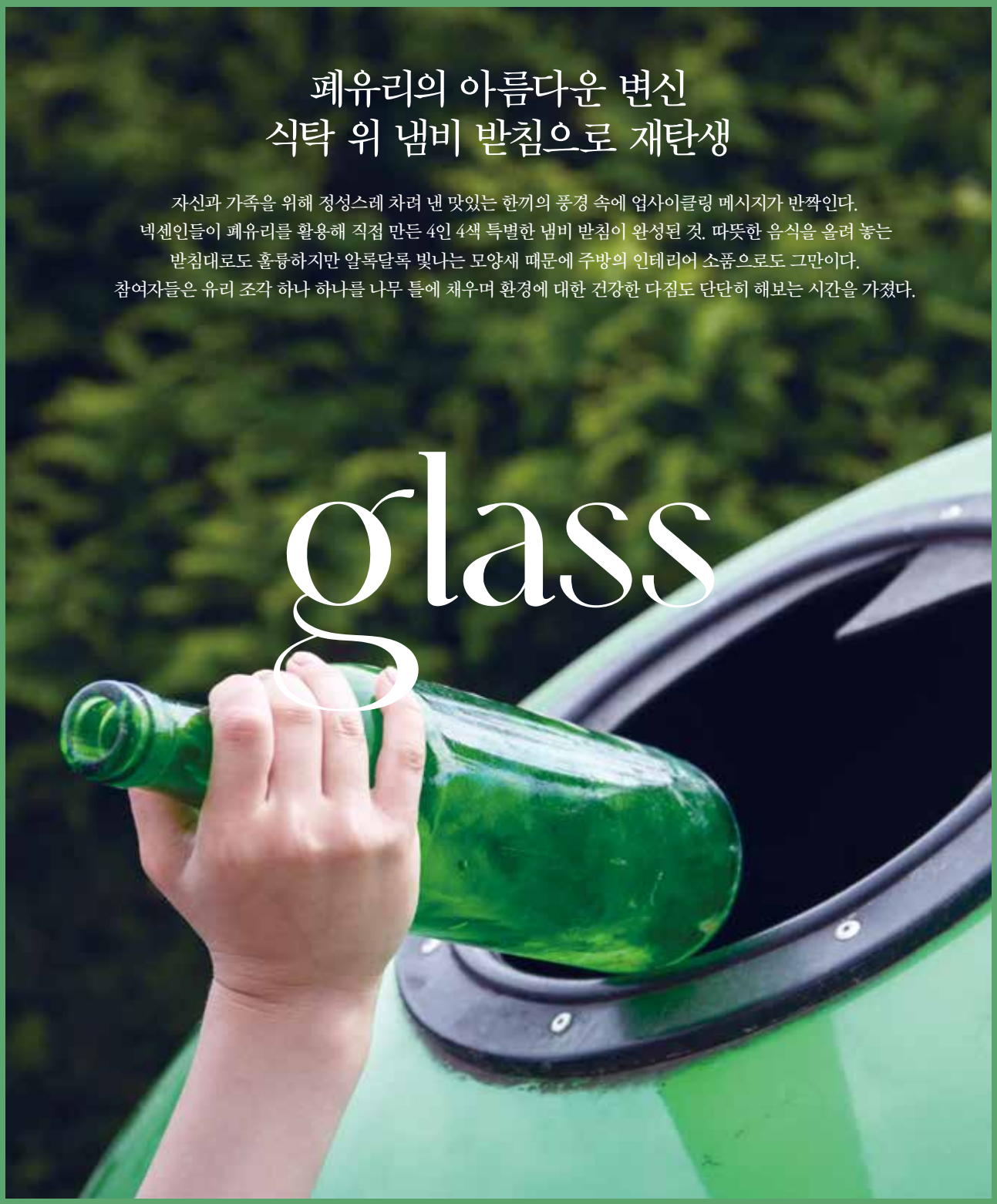
무려 1등이라니요? 놀랐어요! 뽑기 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즐거웠어요.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사람, 여자친구가 에너지원입니다. 이번 휴가 갈 때 같이 비치 타올 요긴하게 사용할 게요.



긍정적인 생각

YP환경안전팀 엄지환 사원, 하준태 선임, 변성욱 사원, 문재호 사원

변: 사보팀에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평소보다 회사가 활기찬 것 같아 좋아요. 팀원들과 함께 참여했는데 저만 2등에 당첨됐어요. ^^ 운이 좋았습니다. 제 에너지원은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합니다.



폐유리의 아름다운 변신
식탁 위 냄비 받침으로 재탄생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정성스레 차려 낸 맛있는 한끼의 풍경 속에 업사이클링 메시지가 반짝인다.
넥센인들이 폐유리를 활용해 직접 만든 4인 4색 특별한 냄비 받침이 완성된 것. 따뜻한 음식을 올려 놓는
받침대로도 훌륭하지만 알록달록 빛나는 모양새 때문에 주방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그만이다.
참여자들은 유리 조각 하나 하나를 나무 틀에 채우며 환경에 대한 건강한 다짐도 단단히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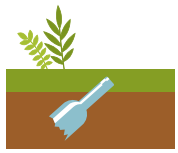
glass

STATION 2

한국에서 매년 버려지는 폐유리는 50만t에 이르며 그 중 20만t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고 있다. 그런 유리가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100만 년 이상 소요된다. 유리병 재사용 가능 횟수는 12~20번이지만 실제로 재사용하는 횟수는 평균 1회에 그치고 있다.
영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리를 만들기 위해 원재료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에너지 소비는 플라스틱보다 크다며, 유리병이 페트병보다 환경에 4배 이상 나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리 제조 과정에서 전 세계 매년
최소 **8,600만t** 이산화탄소 발생



땅에 묻힌 유리가 흙으로
분해되는 데 **100만 년** 소요



재활용 높은 병 색깔은
녹색(소주병), **갈색**(맥주병), **백색**

국내 폐유리병 재활용률은 76.8%이다.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지난 2년새 3% 나 줄어든 수치다. 대부분의 폐유리는 다시 동일한 병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소비되는 녹색(소주병), 갈색(맥주병), 백색이 재활용에 용이하다. 독특한 색상을 갖고 있는 화장품이나 와인, 양주 병은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한다. 한편, 유리병을 파쇄해 인공 모래 상태로 만들어 건축 자재로 사용하면 색깔과 상관없이 유리나 사기 그릇 등도 활용할 수 있다. 100% 유리 재활용을 꿈꾸며 넥센인들의 의미 있는 업사이클링 동행을 함께 따라가보자.



"고사리 손으로 완성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냄비 받침대"

패턴디자인연구팀
추권철 팀장



드디어 도착한 유리 냄비 받침 DIY! 귀여운 아들이 상자를 열면서 "아빠! 내가 아빠의 술 안주 전용 냄비 받침대 만들어 줄게"라고 합니다. 설명서를 읽으면서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 아주 대견했습니다. 완성 인증 사진에 삐쭉 나온 작은 발은 아들인데요. 다 만들고 피곤해서 소파에 쓰러졌어요. "아들, 아빠랑 술 한잔 건배할 만큼 너가 클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을 게."

탁세원 책임
YP품질검사팀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무더위를 피해, 아내와 함께 시원한 음료에 영화를 틀어넣고 냄비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사용 설명서와 동영상을 시청한 뒤 따라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꽤나 완성도가 높아서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만든 업사이클링 아이템을 집에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참여인 것 같아요. 올해 말 출산 예정인 예비 아빠인데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와 같은 만들기 활동으로 추억도 만들고 환경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우리 아이 태어나면 꼭 같이 해보고 싶어요~"





완성도 무엇이죠? 금손으로 새롭게 등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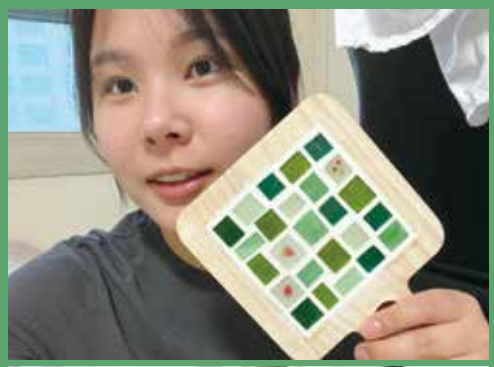


장윤정 사원
글로벌영업지원팀

평소 손재주가 없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만들기가 쉬웠어요. 집돌이 집순이 여러분, 손으로 만드는 취미활동을 추천 드립니다! 어린시절로 돌아간 듯 집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스트레스도 풀고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 함께 해보시겠어요?



Let's upcycle





에메랄드빛
유리가
푸른 여름을 닮았죠?

영업1팀
최은영 사원

유리 리사이클링 냄비 받침을 만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버린 유리병을 처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힘들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한편에서 재활용을 위해 다양한 처리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유리를 사용할 때 조금 더 자각하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나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냄비 받침 너무 예쁘고 튼튼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폐유리 업사이클링 DIY키트를 경험하고 싶다면?

직접 업사이클링 냄비 받침을 만들면서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유리 조각을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어 자신만의 개성도 표현할 수 있다. 냄비 바침은 물론 폐유리로 티코스터도 만들어 볼 수 있다.
아트앤허그 https://smartstore.naver.com/artandhug





파주시 포도농가로 떠난 농촌 봉사활동

▲
농활 브이로그 영상







넥센타이어는 영농철 농업인 일손부족 해소 및 정기적인 농촌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포도농가에서 농촌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더넥센유니버시티 임직원 20명과 함께한 이번 활동은 하룻동안 포도나무 곁순 작업(양분이 열매로 가도록 잎사귀 사이에 난 곁순을 제거)을 진행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재개된 봉사활동이라 임직원들의 열정이 그 어느때보다 뜨거웠다. 담당자인 문화혁신팀 유재훈 책임은 "함께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 준 덕분에 3천여 평 가까이 되는 포도농가 대부분의 곁순 작업을 시간 내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특히 농장주께서 매우 만족해하셔서 보람 있는 하루였다" 라고 전했다.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기업과 함께 하는 농촌봉사활동'이라는 테마 아래, 올해 처음으로 넥센타이어와 콜라보로 진행한 이번 농촌 봉사 활동은 2023년 하반기에도 서울 근교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STATION

VOL 92

2023
SUMMER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캐리어에 꼭 담아야 할
인기 아이템과 피서지에서 주의해야 할 응급상황에 대해
안전 가이드를 준비했다. 또한 도심 바캉스를
즐길 넥센인을 위해 '모험'이야기로 가득한
책과 전시, 공연 등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컬처 가이드
미래참견시점
핫템 모아보기
365 건강백서
NEWS
함께해요

STATION

3

어린시절, 세상에 대한 궁금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질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어른이란 이름의 무게에 밋밋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이 어드벤처이고 미지의 내일이 기다려졌던 아이들이었다! 반가운 모험가들! 스펙터클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이다.

내 안에 꿈틀대는 '모험' 세포!

이야기로 떠나는

오디세이

STATION 3

Adventure

BOOK



뉴호라이즌스, 새로운 지평을 향한 여정

앨런 스턴 , 데이비드 그린스푼 지음 · 김승욱 번역 / 푸른숲 엮음

20여 년의 기획, 10여 년의 비행, 48억km의 여행이란 명왕성 탐사에 대한 인류의 도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 책자는 1980년대부터 2015년 명왕성 탐사에 성공하기까지 탐사선 뉴호라이즌스 호가 걸어온 방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이것은 2,500명의 우주 과학자들의 헌신과 땀이 깃든 이야기다. '아직 탐사되지 않은 명왕성'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우주 과학자들의 집념과 호기심이 들끓는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보자.

#26년_명왕성_탐사 #정치와_우주과학의_관계?
#우주는_호기심_천국

우주탐사의 물리학

윤복원 지음 / 동아시아 엮음

외계행성을 향한, 그리고 우주탐사에 필요한 모든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친절한 과학 특강이다. 물리학, 항공우주공학, 천문학, 지구과학, SF까지 분야를 넘나드는 입체적 재미가 있다. 무중력 체험법,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용한 우주여행 등 지구를 출발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는 모든 방법이 담겨 있다. 중력도움의 원리는 테니스 라켓과 자동길로 비유하고, 큰 천체가 왜 동그란지는 커다란 두부에 비유하는 등 우주탐사의 물리학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외계행성 #인공중력에서_저글링? #재미있는_물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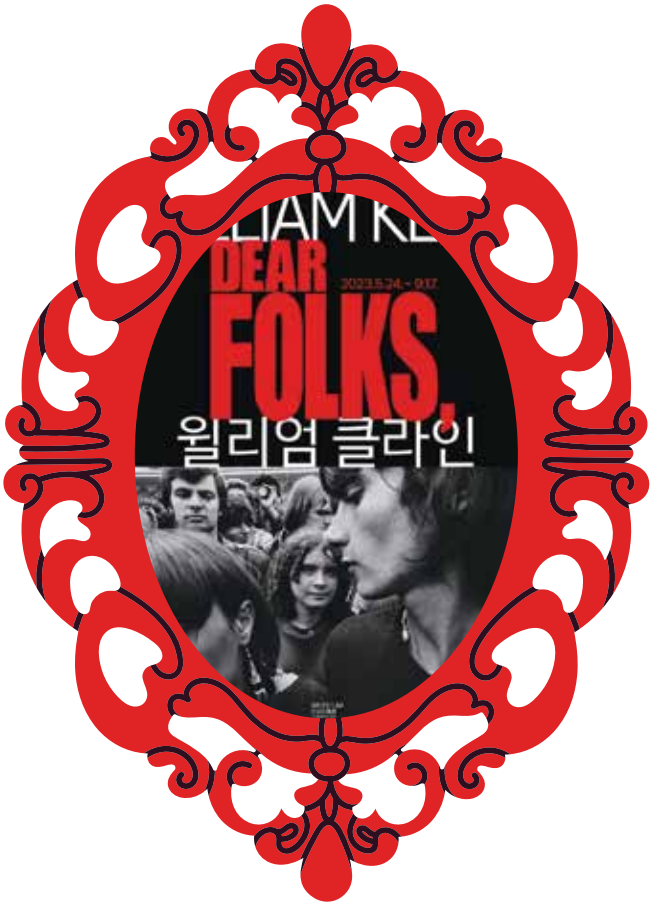
서호주 탐험가를 위한 과학 안내서

조진호 지음 / 위즈덤하우스 엮음

텐트 한 번 쳐본 적 없는 초짜 탐험대가 지구의 태초 모습을 간직한 서호주로 떠나는 탐험 이야기! 붉은 땅 서호주는 매년 세계 최고의 지질학자, 생물학자 등이 과학적 발견을 위해 찾을 정도로 경이로운 지구의 기원을 간직한 곳이다. 생물 교사, 과학저널리스트, 예술가, 과학관 큐레이터로 이루어진 탐험대는 과학자들과의 탐사를 꿈꾸며 보름간 끝없이 펼쳐지는 서호주의 아웃백과 해안 도로를 5,000km 넘게 횡단한다. 이들은 시아노 박테리아 등 지구 생명체의 기원의 흔적을 발견하고, 은하수를 통해 우주의 신비를 엿보며, 원주민 애버리진들을 통해 인간과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넓혀간다. 오지에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과학 탐사기는 다행스럽게도 만화로 그려져 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서호주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날것의 아름다움이 제대로 표현됐다.

#원시의_서호주 #초짜_탐험가들의_오지탐험 #만화로_떠나는_과학여행

EXHIBITION & PERFORMANCE



윌리엄 클라인 : DEAR FOLKS

뮤지엄한미 삼청 / 9월 17일까지

20세기 시각예술의 새 흐름을 선도한 윌리엄 클라인의 사후 첫 회고전. 화가, 사진가, 그래픽 디자이너에서 영화 제작자에 이르기까지 윌리엄 클라인은 책과 잡지, 텔레비전 화면과 대형 영화관 스크린까지 모두를 종횡무진했다. 장르를 넘나들며 풍자적이고 도발적인 위트를 담아낸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탐구하게 된다. 작가의 50년을 연대별, 장르별로 충실히 조명하고 있어 전시 관람에도 어려움이 없다. 초기 회화부터 포토그램, 패션과 거리 사진, 다큐멘터리 영화 등 130여 점의 작품이 준비되어 있다.

#장르를_넘나드는_탐험정신 #도발적인_위트 #거장의_흔적



포스트모던 어린이 [2부] : 까다로운 어린이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지 마세요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 3·4·5(지하 1층) / 8월 27일까지

규칙과 규율의 해체에 대한 상상적 상황을 드러냄으로써 다양한 인간(어린이) 존재 형태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시이다. 회화, 조각, 뉴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73점을 선보이며 감상자의 상상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입구에 설치된 구름 다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볼풀에 뛰어들 수도 있으며, 후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다양한 작품 중 한 점이든 여러 점이든 어린이가 원하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감상(편식)할 것인가는 스스로 정하면 그만이다.

#오감만족_체험전시 #편식하면_어때? #상상세계로의_모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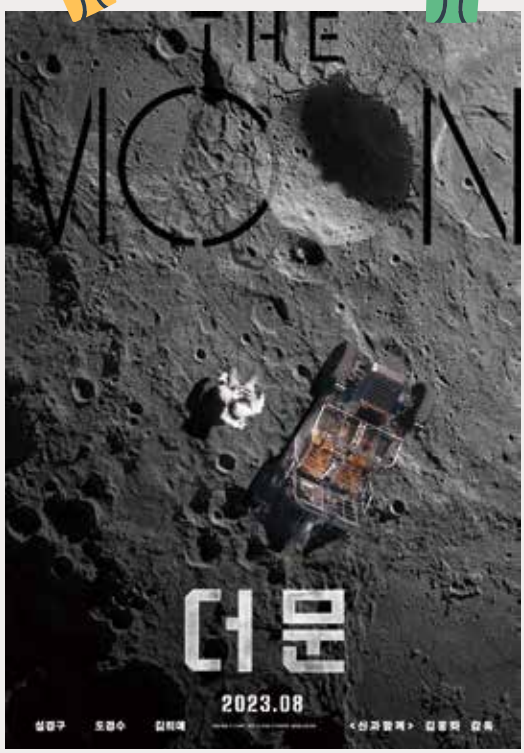


플래닛

2023년 7월 5일 극장 개봉

우주와 지구에서 벌어지는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다. 가까운 미래, 지구를 강타할 핵폭탄급 유성우와 맞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부녀의 고군분투 SF어드벤처. 주인공 15세 소녀의 아빠가 일하고 있는 우주정거장 미르에서 24시간 후 일어날 대재앙에 가까운 운석 충돌을 감지해 알리지만 무시되고 만다. 화려한 유성우의 우주쇼를 기대한 사람들은 건물과 도로 붕괴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인류는 이 재앙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운석충돌 #24시간이_모자라 #우주대재앙



더 문

2023년 8월 극장 개봉

사고로 인해 홀로 달에 고립된 우주 대원 선우와 필사적으로 그를 구하려는 전 우주센터장 재국의 사투를 그린 영화다. 38.4만km 너머 우주에 홀로 고립된 대원의 극한 상황과 지구에서 그를 구하기 위한 센터장의 생존 드라마이다. 출연 인물들이 NASA 우주정거장과 항공우주센터 등에 속해 있어 일반인들이 몰랐던 우주 전문가들의 역할과 고충을 함께 살펴보는 재미도 있다.

#나혼자_달에 #생존드라마
#항공우주센터가_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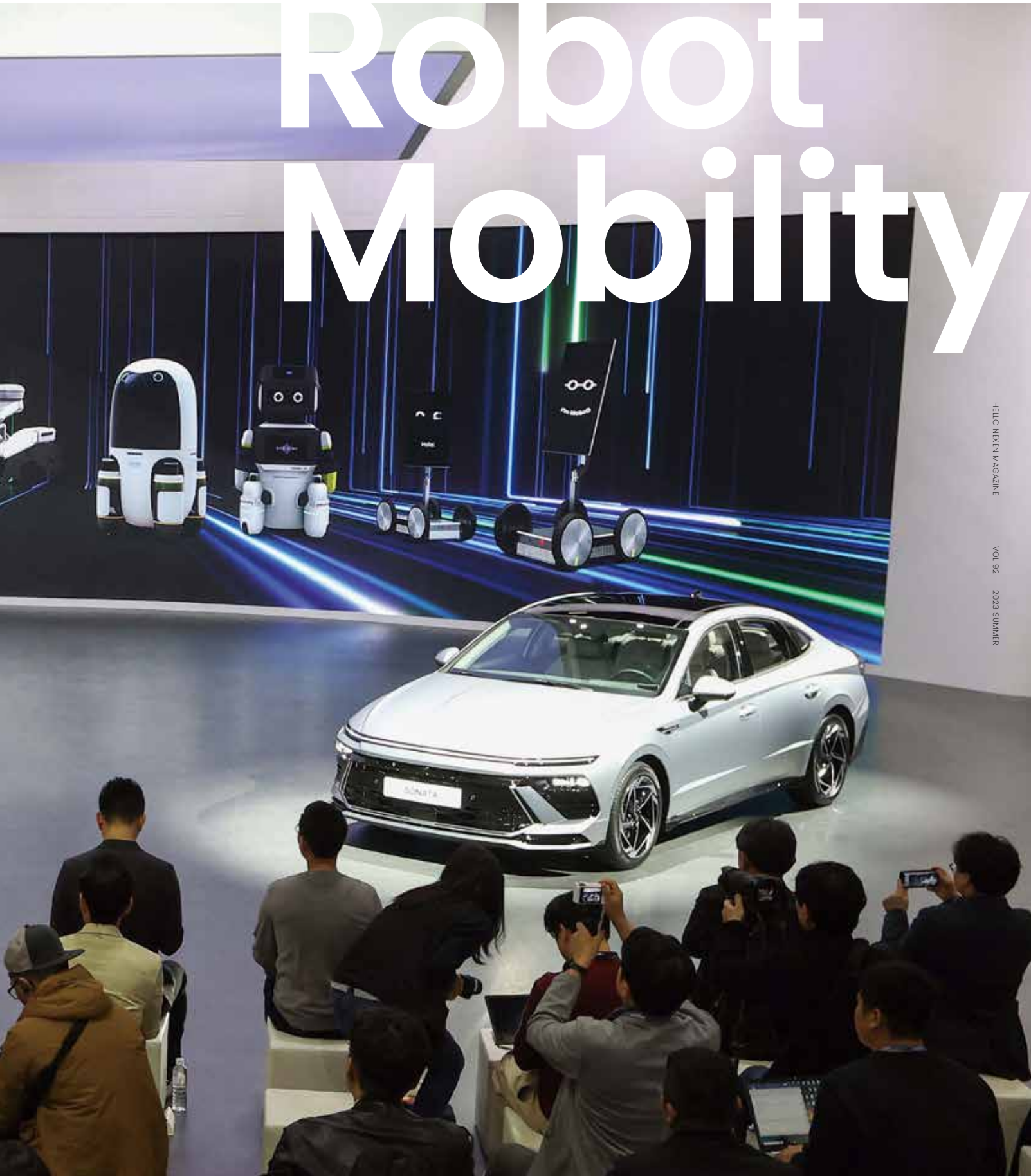
로봇, 모빌리티 쇼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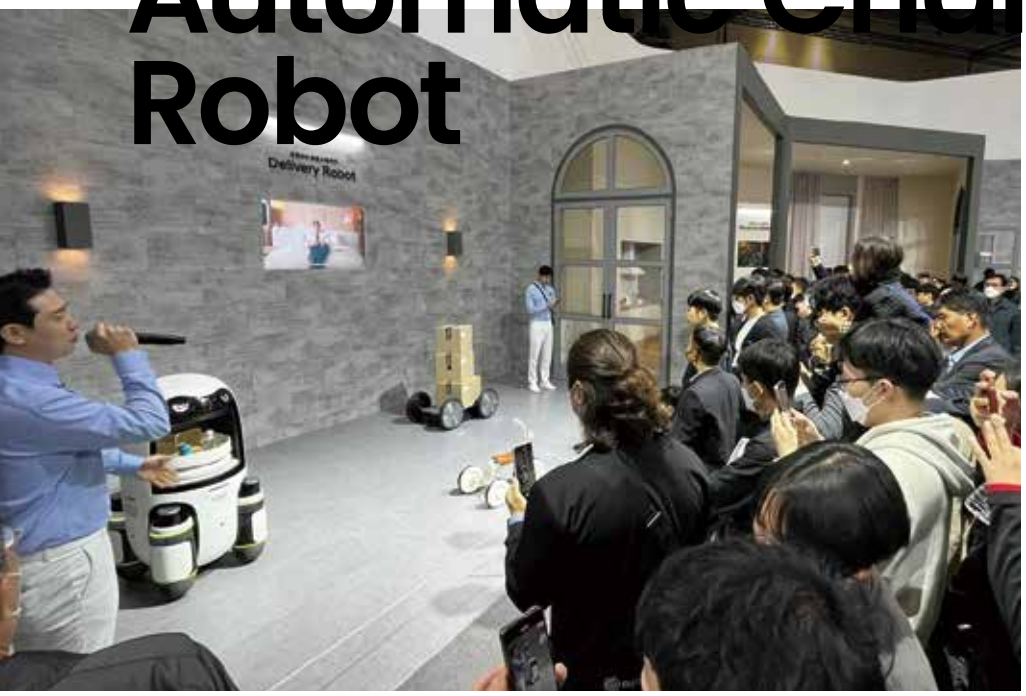
STATION 3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는 다양한 로봇이 등장했다. 자동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로봇, 실내 배송용 자율주행 로봇, 4족 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등 여러 종류의 로봇을 만날 수 있었다. 서울모빌리티쇼가 서울모터쇼에서 이름을 바꾼 것처럼, 로봇은 어느덧 모빌리티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모빌리티쇼를 주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로 명칭을 바꾸기도 했다. 모빌리티 산업에서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로봇의 현재와 발전 방향을 정리해 본다.

Robot Mobility



Automatic Charging Robot







서울모빌리티쇼, 현대의 배송 로봇과 충전 로봇 시연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4족 보행 로봇



테슬라의 테슬라 봇

2023 서울모빌리티쇼와 모빌리티 로봇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로봇은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현대차그룹(이하 현대차)은 실내 자율주행 배송 로봇과 전기차 충전 로봇을 소개했다. 실내 자율주행 배송 로봇은 호텔 등에서 시범 운행되고 있으며, 객실로 물품을 배송하고 있다. 현대차의 실내 배송 로봇에는 지난 CES 2022에서 공개한 PnD(Plug and Drive)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PnD 모듈은 구동부와 센서부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자 실내 이동, 실내 배송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현대차의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ACR, Automatic Charging Robot)도 큰 인기를 끌었다. 전기차가 충전 위치에 도착 후, 차량의 충전 정보 등이 로봇으로 전송되면 자동으로 충전구가 열려 로봇이 충전해 주는 시스템이다. ACR 관련 기술은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많은 확산이 기대된다. 여러 자동차사와 로봇 회사들이 관련 표준을 적용하여 기술이 확산되면, 건물이나 충전소에서 편리하게 자동으로 충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와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4족 보행 로봇인 비전 60과 스팟을 전시했다. 로봇 개로 불리는 4족 보행 로봇은 주변 정보를 알려 주거나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제 2023 서울모빌리티쇼 행사장에서 입장을 안내하기도 했다.

테슬라와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와 아틀라스를 전시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많은 투자가 진행 중이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기술을 바탕으로 모터와 배터리 중심의 휴머노이드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백덤블링 등 다양한 동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2023 서울모빌리티쇼의 다양한 로봇들은 자동차와 로봇의 경계가 사라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이동을 위한 로봇, 사용자를 도와주는 로봇과 함께 로봇 개, 휴머노이드 등 반려 및 동반자 로봇의 미래도 함께 제시했다. 챗GPT와 같은 LLM(Large Language Model) 기술의 발전도 로봇 서비스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와 애질리티로보틱스의 로봇 진화 발표, 출처: 각 사

CES 2023, 다양한 모빌리티 로봇

지난 CES 2023에서도 실내외 배송 로봇, 반려 로봇, 농업용 로봇 등 다양한 모빌리티 로봇이 전시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힐스로보틱스와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 에바의 자율주행 충전 로봇 등이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스텔란티스는 트럭 밑으로 이동해서 충전해주는 충전 로봇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UNIST에서는 1인용 이동 로봇 앙고를 시연하기도 했다.

자율주행 배송과 함께 사용자 이동을 위한 휠체어나 유모차 형태의 로봇도 다양하게 선보였다. 휠(Whill)의 자율주행 휠체어와 글릭스킨트(GlüxKind)의 자율주행 유모차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글릭스킨트의 자율주행 유모차는 목적지까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경사진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등 유모차 사용성을 높였다.

CES 측은 전기차 기술이 로봇, 농기계, UAM, 선박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핵심 이슈로 꼽기도 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사례처럼 모터 및 배터리, 자율주행 센서 및 프로세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동 로봇들이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테슬라와 포드-애질리티로보틱스가 보여주는 휴머노이드의 진화

최근 테슬라와 포드-애질리티로보틱스에서는 기존 옵티머스와 디짓이 진화해 나가는 모습을 발표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발표에서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방향이나 서비스 방향을 엿볼 수 있다.

테슬라는 지난 5월 16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테슬라 봇 옵티머스의 업데이트를 공개했다. 테슬라 봇 옵티머스는 걸음걸이 등 여러 면에서 한층 진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5대의 로봇을 동기화하여 동시에 이동하는 시연을 통해서 작업 및 사용자 보조 등에서 협동 로봇으로 진화하는 가능성도 보여 주었다. 테슬라 측은 이 로봇들이 동일한 인공지능 신경망에 연결되어 개별적으로 작업하거나 동시에 같이 작업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테슬라 AI 데이 2022에서 발표된 내용에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한 에바의 충전 로봇, 힐스로보틱스의 배송 로봇 하이봇과 뉴비, 출처: 각 사

포드는 지난 2019년 5월 애질리티로보틱스에서 개발한 디짓을 이용하여 상품 배송을 선보인 바 있다. 배송 트럭에서 내린 휴머노이드 로봇 디짓은 상품을 내려서 집 앞으로 배송하게 된다. 올 3월과 5월에 애질리티로보틱스는 디짓의 새로운 기능들을 발표했다. 3월에 열린 물류박람회 ProMat 2023 행사에서는 휴머노이드를 이용한 창고 물품 운송 작업을 시연했다. 반복적인 운송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서 프로맷 전시회에서 MHI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접을 수 있는 특유의 다리 디자인을 통해서 좁은 공간에 수납이 가능하고,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앉을 수 있는 설계와 LLM을 통한 명령어 이해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모빌리티의 미래를 여는 모빌리티 로봇

2023 서울모빌리티쇼와 CES 2023에서는 경계가 사라진 자동차와 로봇 생태계, 다양한 모빌리티 기기로 진화하는 관련 기술을 만나 볼 수 있었다. 모빌리티 로봇은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실내외 이동 등으로 다양해지는 모빌리티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다양해지는 모빌리티 기기에서 타이어의 역할도 이슈가 되고 있다. CES 2023에서 주요 타이어 업체들은 친환경을 강조한 타이어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스마트타이어컴퍼니는 형상기억합금 타이어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WIS 2023에서 현대차 사내벤처인 모빈은 플렉서블 휠을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는 시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타이어는 아니지만, 4족 보행 로봇이나 휴머노이드의 경우에는 발바닥에 고무재질 등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기기를 위한 바퀴 타이어나 발바닥 소재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로봇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이 바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기대해 본다.

STATION 3

여행의 품격을 높여라!

인싸 캐리어 훔치기

바캉스의 시즌이 도래했다. 누구와 어디로 떠나 무엇을 할지도 중요하지만, 여행의 한 끗 차이는 바로 캐리어에서 결정되는 법이다. 평범함과 똑같음을 거부하고 싶은 당신! 일행들 사이에서 인싸가 되고 싶은 당신! 핫한 여행 아이템 방출이 지금 시작된다. 캐리어는 열고, 눈은 크게 뜨고! 신박한 아이템을 득템하기 위한 집중의 시간이다.



한잔을 즐겨도 부드럽게, 맥주 거품기

여독을 달래는데 맥주 만한 것이 없다. 새로운 것을 찾아 종일 돌아다닌 여행객을 위한 맥주 한 잔은 하루의 마침표인 셈이다. 차갑게 얼음을 넣어 먹는 것도 좋지만 목 넘김을 극대화해줄 크림이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맥주 거품기를 캔이나 PT병 위에 꽂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인싸로 등극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일명_비어라떼 #크림같은_거품
#한수위_맥주맛

운동 마니아의 단백질 사랑
프로틴 소분 케이스

여행 중에도 헬스나 조깅을 꼭 챙기는 운동 마니아들이 있다. 그들에게 운동은 먹는 것까지 포함되는 법! 하지만 여행 가방에 단백질 보충용 프로틴을 통째로 챙겨 가기에는 부피가 너무 커서, 지퍼팩을 사용하지만 이동 중 터질 염려가 있다. 프로틴 소분 케이스는 필요한 만큼 나눠서 담을 수 있으며, 선식이나 견과류를 담기에도 손색이 없다. 세로로 긴 형태라 캐리어에 담는데도 부담이 없다.

#프로틴_놓칠_수_없어 #소분의_지혜

티소믈리는 여행 중
휴대용 다기세트

여행을 가서도 언제 어디서나 차를 마시고 싶은 당신. 하지만 여행 가방 안에 깨지기 쉬운 티팟과 무거운 다기를 갖고 다니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티백으로 된 차보다 직접 우려서 차 맛을 즐기는 당신이라면 초소형 티팟과 앙증맞은 찻잔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휴대용 다기세트를 사용해보자. 케이스 자체에 충격 완충 효과가 있어 이동 시 안전하게 보관 가능하며, 포개어 담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 부담이 없다.

#제대로_우려낸_차향
#모던한_디자인 #힐링_한잔

나와라! 만능
접이식 전기 포트

여행지에 가서 숙소에 준비된 커피포트 속 물 때를 보며 찝찝했던 경험, 누구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용 캠핑장에서 인스턴트 음식을 데우려 해도 전자레인지 한번 사용하기 위해 줄 서는 것도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집에 있는 커피포트부터 전자레인지까지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 이 고민은 '접이식 전기포트' 하나로 해결 가능하다.
커피와 컵라면의 물을 끓이는 것은 기본! 즉석밥이나 3분 요리를 데우는 데도 사용할 수 있으며 채소, 달걀, 만두 등을 찔 수 있어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접이식이기 때문에 이동할 때 부피를 1/3로 줄인다는 치명적인 장점이 캐리어에서 빛을 발한다.

#캐리어에쑥 #컵라면부터_삶은계란까지
#간편식_소울메이트

실속파 인싸 캐리어 간편하게 제대로 즐기는 여행의 고수





장시간 해외여행, 비행기 발해먹부터!

코로나로 엄두를 못 냈던 해외여행을 마음먹고 떠나기 시작했다. 벼르고 있었던 만큼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여행도 감내하는 사람들. 하지만 비행기 탑승 후 몇 시간이 흐르면 다리와 발이 퉁퉁 붓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기내 앞좌석에 있는 보조 발 거치대로도 영 불편했다면 휴대용 발해먹을 가져가자.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도 편하며, 테이블 사이로 넣어 버클을 끼운 후 자신에게 맞는 위치를 조정하면 된다.

#굿바이_부종 #이코노미_필수품
#발에게_해방을



여행지에서도 찰랑찰랑, 드라이 샴푸

호텔에서 묵는다면 상관없지만 캠핑 혹은 차박을 할 때는 씻는 것도 일이다. 샤워는 못하더라도 머리 만큼은 감고 싶은 여행자를 위해 물 없이 사용 가능한 드라이 샴푸가 있다. 파우더형, 스프레이형, 버블형 등 종류가 다양하다. 머리의 기름기는 물론 제품별 특유의 향이 있어 사용하면 은은한 향기가 기분을 좋게 만든다. 여행의 반은 사진인데, 떡진 머리로는 카메라 앞에 서기 싫은 당신을 위한 필수템!

#24시간_향긋
#캠핑에서도_깔끔_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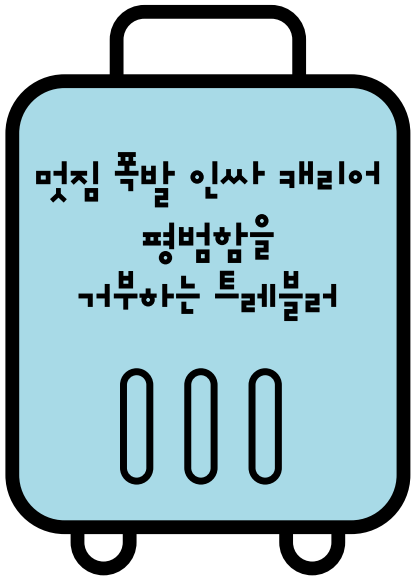


백패킹 갈 때, 휴대용 정수 텀블러

자연 친화적인 여행, 백패킹을 즐길 때 여행객들은 쓰레기 제로에 도전한다. 일회용 사용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물은 마셔야 하는데, 생수를 잔뜩 사 들고 가기 어려울 뿐더러 살 곳도 마땅치가 않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가 되는 휴대용 텀블러가 있다. 수동 펌프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건전지를 챙길 필요도 없다.

#제로웨이스트의_특별한_텀블러
#자연속_수분섭취

멋짐 폭발 인싸 캐리어 평범함을 거부하는 트레블러



나만의 스타일, 캐리어 커버 커스텀

남들과는 다른 맞춤형 아이템이 대세인 커스텀의 시대다. 여행 가방도 예외는 아니다. 아기자기하게 스티커를 붙이거나 전문 업체에 프린팅을 맡기기도 하지만 계절이나 취향 따라 자주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커버만 다르게 주문하고 있다. 방송인 유병재가 자신의 얼굴을 프린트한 것처럼 사용자의 사진을 활용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그림이나 캐릭터를 넣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캐리어 커버를 제작한다. 공항에서 짐 가방을 찾기도 좋고 캐리어를 보호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어 일석이조!

#내얼굴_캐리어 #멀리서도_내가방_한눈에 #싸게는_2만원부터

바닷가 분위기 업! 방수 블루투스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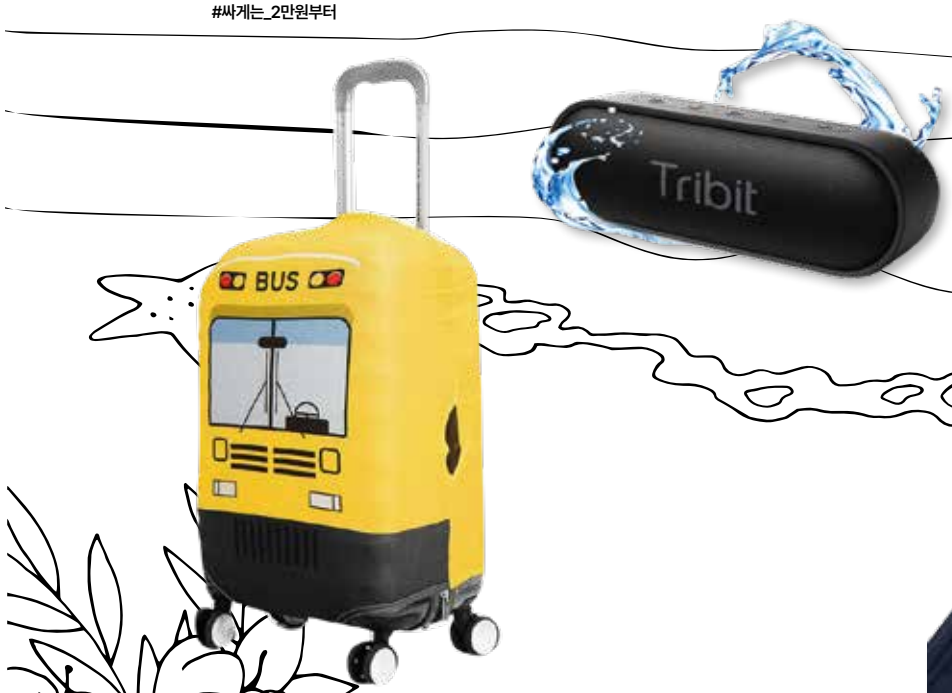
여름 바캉스 기분을 내기 위해 찾은 바닷가에서 튜브에 올라 망중한을 즐길 때나 물놀이를 하고 비치 파라솔 아래에 누워 꿀맛 같은 휴식을 만끽할 때도 음악이 빠질 수 없다. 하지만 블루투스 스피커가 물에 젖을까봐 노심초사했다면 방수용으로 준비하자. 특히 풀빌라에 놀러 갔다면 방수 블루투스 스피커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수영을 하면서 감상하는 음악의 즐거움에 빠져보자. 가격대는 1만원대에서 10만 원까지 브랜드별로 다양하다.

#물에_빠뜨려도_안전 #수영장이_뮤비촬영장

핏이 산다! 와이셔츠 보관 케이스

편안한 차림도 좋지만 여행의 마지막 날 하루 정도는 멋지게 차려 입고 인생 사진을 남기고도 싶다. 여성들의 여름 원피스의 경우 구김이 안가는 재질이 많은 반면, 남성들의 셔츠는 금방 주름이 생겨 반드시 다리미가 필요하다. 다리미 대신, 와이셔츠 보관 케이스에 담아가면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어 가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다려 놓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넥타이도 함께 주름 없이 보관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지에서도 멋을 포기하지 말자.

#다리미_필요없어 #특별한순간_차려입는_맛





STATION 3

피서지에서 생긴 일!

응급 상황

A to Z

마음먹고 떠난 여름 휴가! 기분 좋은 추억으로 가득해야 할 피서지에서 생각지도 못한 응급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어떨까?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바캉스를 즐기기 위해 장소 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시뮬레이션하며, 대처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는 만큼 더 재미있게 다녀올 수 있는 여름 휴가 안전 가이드를 정복해보자.

바닷가에서 생긴 일

모래 사장 위, 땡볕 속 열사병 발생

여름철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온열질환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기온이 높은 12시~15시 사이에는 외출을 삼가고 갈증이 나면 자주 물을 섭취해 줘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가장 흔하게 겪는 일사병은 어지러움과 구토를 일으키며 체온이 37~40도 사이로 상승한다. 이때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40도 이상 올라가는 열사병은 고열, 땀 사라짐, 섬망·발작·혼수와 같은 의식 변화가 일어난다. 증상이 심할 시 뇌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그늘이나 서늘한 곳으로 옮긴 후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열상병은 응급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 후송이 원칙이다. 119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를 탈의 후, 찬물 또는 얼음물로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물에 적신 천을 몸에 덮은 뒤 선풍기나 부채 등으로 바람을 쏘이면 빠르게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되, 의식이 없을 시에는 물이 기도로 흡인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도록 한다.

열사병 증상 체크

☀
고온 노출 시
아래 증상 중 1~2개가
나타나면 의심

- ☐ 갈증이 심하다
- ☐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 ☐ 어지럽거나 두통이 느껴진다
- ☐ 입 안이나 눈·코 점막이 바짝 마른다
- ☐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호흡이 가빠진다

열사병 위험군

☀

- 4세 미만 어린이
- 75세 이상 노인
- 만성 질환자
- 알코올 중독자
- 이뇨제 복용자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로 건져 졌다면?

익수 사고는 사망 확률이 높으며, 생존해도 저체온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심각한 신경계 손상으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며 특히 술이나 특정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물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이안류(역파도) 사고가 발생하는데, 수영을 잘해도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역파도에 휩쓸렸을 때는 해변쪽으로 헤엄치지 않고 물 흐르는 방향의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헤엄치거나 튜브 등을 붙잡고 균형을 잡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익수 사고가 났다면 환자를 물 밖으로 꺼낸 뒤, 일반 심정지 상황처럼 머리를 뒤로 젖힌 후 기도를 열어주고 호흡이 없다면 인공호흡을 시도한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가 오기 전까지 CPR을 시도한다. 단, 일반적으로 물을 토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환자를 거꾸로 뒤집어 등을 두드리거나 손가락을 넣어 물을 토하게 만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며 환자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환자가 인공호흡을 통해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저절로 물을 토한다.

역파도 지수
'안전해' 앱으로
실시간 무료로
확인 가능

저체온증 막으려면 40분 물놀이, 20분 휴식!

수영 후 몸이 떨리고 피부가 창백해지면서 입술이 파랗게 변했다면 저체온증 전조 증상이다. 젖은 의복을 제거한 후 담요로 감싸주거나 겨드랑이와 배에 핫팩 등으로 체온을 높여 준다. 단! 마사지나 손으로 문지르는 등 충격을 주는 행동은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



물 속 해파리한테 제대로 쏘였다?!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따가운 느낌과 함께 발진, 통증, 가려움이 동반된다면 해파리에 쏘였을 확률이 높다. 특히 7~8월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파리의 출현이 잦아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가능하면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곳은 피하고, 부유물이나 거품이 많은 곳, 유속이 느린 곳에 해파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한다.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구토, 설사, 복통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우선 해파리에 쏘였다면 물 밖으로 나와 상처 부위를 바닷물로 10분간 헹군다. 젓가락으로 촉수를 떼어내고 피부에 박힌 촉수는 플라스틱 카드로 살살 긁어낸다. 이후, 미지근한 물에 상처 부위를 담그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빠른 처치에도 상처에 이상이 계속되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소독을 한다고 알코올이나 식초 등을 쏘인 부위에 뿌리면 해파리 촉수를 자극해 독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또한 죽은 해파리도 독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한다.



캠핑장에서 생긴 일

후덜덜! 독사에게 물렸다?

국내에는 살무사, 불독사, 까치살무사 등의 독사가 서식하고 있으나 급사시킬 정도의 맹독성을 갖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빨리 병원에 후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독사에 물렸다면 독이 전신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

먼저, 환자를 안정시켜야 한다. 놀라서 흥분하거나 움직여서 물린 자리를 흔들면 혈액 순환을 빠르게 해 독이 급격하게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이 됐다면 물린 부위를 비눗물로 부드럽게 세척한 후, 가능하면 상처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최대한 심장이 있는 가슴부위보다 물린 위치가 낮게 오도록 위치시킨다. 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린 부위의 5~10cm 위쪽을 묶으면 되는데 이때 얇은 고무줄 보다는 탄력성이 덜한 넓은 천이나 스타킹 같은 것으로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너무 조이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뱀에 물린 환자는 구토 및 복통, 의식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나 음료수를 주지 않아야 하며 특히 술은 몸 안에 독을 빨리 퍼지게 하기 때문에 절대 금기이다.

물린 부위로 독사 체크



벌에 쏘였는데 전신이 가렵다면?

휴가철 8월과 벌목철인 9월에 벌에 쏘인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벌에 쏘였을 때는 상처 부위에 통증과 부종이 전부이기 때문에 소독이나 얼음 찜질 정도면 쉽게 호전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살살 긁어 육안으로 보이는 벌침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호흡곤란과 가슴조임, 청색증, 실신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증세가 심할 시 119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전신이 가렵거나 마른 기침을 하면 심각한 알레르기 전조 증세일 수 있어 즉각 병원으로 가야 한다.



야외에서 요리한 음식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음식을 먹은 후, 두통이나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을 의심해 보자. 피부에 수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설사를 한다고 해서 의사의 진단 없이 지사제부터 먹으며 균이나 독소 배출 시간이 길어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온음료 등으로 수분을 보충하면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식중독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음식을 60~70도 이상으로 10분 이상 가열해서 익혀 먹어야 하며 여행지에서 생수가 아니라면 물도 끓여 먹는 것을 권한다. 김밥과 샌드위치는 상하기 쉽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상온에 방치됐으면 먹지 않도록 한다. 행주와 도마는 끓는 물로 자주 소독 및 세척해야 하며 장을 자극하는 생과일이나 커피, 콜라 등의 섭취는 피하도록 한다.

여름철 설사 일으키는 주요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 · 상한 닭고기나 우유·달걀을 통해 감염
- **장티푸스** · 티푸스균에 오염된 물과 음식을 섭취하면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
- **노로바이러스** ·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거나, 조리자가 오염된 손으로 조리하면 발생
- **포도상구균** · 식품에 제일 많은 식중독균
- **병원성 대장균** · 소·돼지 등의 내장에 있는 균
- **비브리오균** · 굴·조개·생선회 등을 날것으로 섭취하면 감염
- **리스테리아균** · 쇠고기·닭고기·어패류·달걀 등의 음식에 존재



휴가 후, 근육통에 시달린다면

휴가를 잘 다녀왔는데 온몸의 근육이 욱신거리는 걸 경험하게 된다. 근육 속 피로 물질이 쌓여 생긴 근육통이다. 보통 1주일 정도 고생한다. 통증 완화를 위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냉온욕을 해보도록 하자. 40도 정도 물에 10~15분 담갔다가 14~15도 시원한 물에 1~2분 담그는 한 세트를 2~3회 반복하는 방식이다. 혈액 순환을 도와 피로 물질을 빨리 사라지게 하고 근육 이완에도 효과적이다.



HELLO NEXEN NEWS 1



넥센타이어, 친환경 원료 사용해 지속가능한 타이어 개발

넥센타이어가 친환경 원료 사용 비율을 높인 지속가능한 컨셉 타이어를 지난 4월 공개했다. 지속가능한 타이어란 석유 및 광물 자원을 최소화해 자원 소모를 줄이면서, 친환경적이고 재사용 가능한 재료들을 사용해 환경과 생태계의 피해와 자원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타이어를 말한다.

넥센타이어는 천연고무를 비롯 바이오 기반의 합성고무, 쌀겨 실리카, 바이오 기반의 고무약품 등 44%의 재생원료를 사용했다. 여기에 PET병을 재활용한 PET 코드, 고철을 재활용해 전기로로 생산한 비드와이어 등 8%의 재활용 재료를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원재료 비율을 52% 적용한 컨셉 타이어를 개발했다.

넥센타이어는 다양한 바이오 자원 및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를 발굴하고, 사용 비율을 높여가는 등 친환경 타이어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계 각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ESG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완성차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서도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타이어 생산 전 과정에서 유해 물질 함유 및 배출 억제, 친환경 에너지 및 재료 사용 등 친환경 공급망 구축을 위해 완성차 업체의 적극적인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ESG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ELLO NEXEN NEWS 2



넥센타이어,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시티 후원 연장, 9번째 시즌 동행

넥센타이어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FC(맨시티)와 후원 계약을 연장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2015년 맨시티와 처음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17년에는 프리미어 리그 최초로 공식 슬리브 파트너로 계약을 연장하며 후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재계약으로 4번째 후원을 이어가며 9번째 시즌을 함께한다.

후원 계약 체결식은 강호찬 넥센타이어 부회장과 페란 소리아노 맨시티 CEO 및 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영국의 맨시티 CFA(City Football Academy)에서 치뤄졌다.

이번 계약을 통해 넥센타이어는 맨시티 홈구장인 '에티하드 스타디움' 광고를 통한 브랜드 노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포함한 마케팅을 펼치며 맨시티 후원사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맨시티는 2015년 넥센타이어와 첫 파트너십 체결 이후 프리미어 리그 4회 우승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쳐오고 있다.

강호찬 넥센타이어 부회장은 "2015년부터 시작된 맨시티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지속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맨시티와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전략적 파트너로서 시너지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페란 소리아노 맨시티 CEO는 "오랜 파트너사 넥센타이어는 맨시티의 역사적이고 성공적인 순간을 함께 해왔다"며, "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멋진 경기로 보내준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HELLO NEXEN NEWS 3

넥센타이어, 독일 '2023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독일 '2023 iF 디자인 어워드'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로디안 HTX 2' 제품이 본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4월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시작된 디자인 분야의 최고 권위의 상으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받는다. 이번 어워드에는 전 세계 56개국 1만 1,000여 개 출품작이 경쟁을 벌였으며,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130여 명의 심사위원단의 평가에 의해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넥센타이어의 '로디안 HTX 2'는 경쟁 제품 대비 스노우 트랙션 성능과 마일리지 성능이 더욱 강화된 SUV/LT용 HT(Highway Terrain) 타이어다. 견인력을 높여주는 '3D 사이프(타이어 표면의 미세한 홈) 기술'을 통해 눈이 오는 상황에서도 향상된 트레드 접지력과 핸들링 성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숄더 블록에 적용된 '쿨링 핀' 디자인은 주행 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여 고속 주행 환경에서도 타이어의 내구성을 높여주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사이드월에는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각각 다른 테마를 가진 디자인을 적용하여 소비자가 본인에 취향에 맞는 사이드월 디자인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넥센타이어만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ELLO NEXEN NEWS 4

넥센타이어, ESG 경영 강화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넥센타이어가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지난 5월 가입했다. UNGC는 2000년 미국 뉴욕에서 발족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 전 세계 162개국 2만여 개 회원사가 가입 되어 있다. 회원사는 UNGC의 핵심 가치인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개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보고서(COP)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넥센타이어는 UNGC 가입을 계기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기업 경영 전반에 확산시키고 지속가능 경영 성과를 담은 노력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CEO 산하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를 수립해 전사 차원의 ESG 전략과제 수행을 추진하고,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기업 대내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해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ESG 글로벌 표준을 내재화해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ESG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원재료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는 넥센타이어의 가입이 큰 의미가 있다"며 "금번 가입을 통해 UNGC의 10대 원칙을 기업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내재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글로벌 ESG 평가플랫폼인 '에코바디스'에서 2년 연속 Silver 등급을 획득했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실시한 ESG 평가에서는 지난해 보다 1단계 개선 된 'BB'를 획득했다. 여기에, 기업의 ESG risk를 평가하는 '서스테이널리틱스'에서는 risk 위험 노출 수준 'Low' 등급을 받는 등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HELLO NEXEN NEWS 5

넥센타이어, 신규 TV 광고 '넥스트 세이프티' 론칭





넥센타이어가 안전을 향한 앞선 생각과 미래 지향적 기술 및 성능을 소개하는 신규 TV 광고 '넥스트 세이프티(Next Safety)'를 지난 4월 론칭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선보인 '넥센에게 시키세요'에 이어 이번에 공개한 '넥스트 세이프티' 캠페인을 통해 타이어의 가장 근원적인 가치인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급 가속 시 차량 슬립을 방지하는 설계,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저감시키는 AI 빅데이터 기술 및 타이어 마모가 50% 미만일 경우에도 패턴 형상을 유지하는 기술 등 넥센타이어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강조했다.

여기에, 디지털 미디어 아트, 증강 현실 등 최신 기술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고객의 모습을 통해 '넥스트 세이프티'의 진취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보여준다. 넥센타이어는 최신 기술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MZ세대의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광고 영상 제작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광고는 TV 채널 및 유튜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국내 최초 비대면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 '넥스트레벨 GO'와 타이어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 렌탈'을 도입하며,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를 지속해오고 있다.

HELLO NEXEN NEWS 6

넥센타이어, 아름다운가게와 '아름다운 숲' 조성



넥센타이어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아름다운숲'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5월 밝혔다.

'아름다운 숲' 조성 사업은 자연정화능력이 부족한 땅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듦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아름다운가게의 도시 숲 조성 프로젝트다.

넥센타이어는 아름다운가게와 협업을 통해 서울 마포구 난지도 노을공원 노을전망대 부근에 들메나무, 헛개나무 등 총 8종 묘목 250그루를 심어 250m² 규모의 도시 숲을 조성했다. 이번 '아름다운 숲'은 넥센타이어 임직원의 기부금과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통한 아름다운가게 매장 판매에서 마련한 수익금을 토대로 조성됐다.

넥센타이어는 "아름다운 숲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숲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플로깅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으로 환경 보호 실천에 앞장서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ELLO NEXEN MAGAZINE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사내 특별한
소식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헬로우 넥센〉
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hellonexen@nexentire.com

STATION 3

〈헬로우 넥센〉 여름호 이벤트 참여

〈헬로우 넥센〉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단의 QR 코드 스캔하기

▼

이벤트 참여하기

▼

인적사항 기입

▼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프티콘 증정)

당첨자 확인과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N'FERA supreme S

흡음재 & AI 테크놀로지 적용으로 극대화 된 승차감

마모되어도 최대한 유지되는 주행 성능

고성능 / 고하중 차량 최적화

더욱 좋아진 연비 효율성까지



NEXEN TIRE

we got you

NEXEN TIRE
we got you
OFFICIAL PARTNER OF MANCHESTER CITY
PREMIER LEAGUE CHAMPIONS 2022/23



NEXEN TIRE
we got you